

버스노선 난리통에 외유성 버스정책 시찰

인천시, 공무원·업체 대표 등 '일본 운영사례 탐방' 열세 지원

인천시가 버스 노선의 지속 전면 개편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업체 대표들과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외유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유 명목은 일본의 '버스정책 모범 운영 사례'를 보겠다는 것으로 인천시 공무원과 지역 버스업체 대표들, 버스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한다. 일정 대부분이 관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 버스정책과장 등 공무원 2명과 버스회사 대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 46명이 약 7천500만 원의 세금으로 31일부터 9월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홋카이도로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지역 버스업체의 신노사문화 정착과 노사정 관계를 정리하고, 외국 선진 도시의 버스정책 및 모범 운영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시민 위주의 버스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외유에 참가하는 민간인 44명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비로 7천260만 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로 260여만 원 등 총 7천520여만 원의 협력을 지원한다.

전면개편 후 민원 폭주하는 시점 매년 진행하던 노사정 협력 프로

업무는 하루, 대부분 관광·온천 시 "일정이 그때 잡혀서..." 해명

문제는 3박 4일 일정 중 버스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일정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첫날인 31일은 낮 12시 45분 일본 치토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아이누 민속촌을 탐방한다. 이어 오후 4시 호텔에 투숙해 온천욕을 즐긴다. 둘째 날 오전에는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도야호수 유람선을 탐승하고, 쇼와신상 활화산 견학 후

해변가와 연결된 아마사타 공원을 관광한다. 오후에는 오타루 운하 등을 둘러보고 역시 온천으로 일과를 마무리한다.

유일하게 업무와 연관된 셋째 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삿포로시청을 방문하고, 중식 후 일본 버스회사를 두 시간여 둘러본다. 공식 일정이 끝나면 윈터 뮤지엄과 오오쿠라야마 전망대 견학 등 관광에 나선다. 관광 일정은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인천 북귀 날인 9월 3일 호텔에서 조식 후 구도청사와 시계대 등을 둘러보고 오후 5시 15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은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42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후 시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과 개편 2주 만에 노선을 재조정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외유성 해외 관광에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시내에서라도 이 같은 얘기가 나온다.

시의 한 직원은 "버스 노선 개편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공무원과 버스업체 사장들이 혈세로 해외 연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행사이고, 일정이 그때 잡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朴대통령, 3개 부처 개각 차관급 인사 4명도 교체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아울러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관련 기사 5면>



조윤선 문화부 장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

박 대통령은 이날 심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청와대 정무수석역인 조윤선(50)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59)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환경부 장관에는 조경규(57)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과 국정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문화 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 융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30여 년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농촌 경제의 활력을 북돋아 나갈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환경 분야 등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춘 분으로,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개 부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산업부 1차관에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 비서관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임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키 얼마나 컸나 보자... '두근두근' 초교 개학 풍경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인천 백학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6일 교실에서 방학 동안 누가 더 키가 자랐는지 키 재기를 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1년, 성과 목마르는데 현실은... ▶ 3

Rio2016 리듬체조 손연재, 결전지 리우 입성 ▶ 16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전 그 후...

인천시 확대하고 '울타리'마저 사라져 기계업체들, 이참에 공장 탈인천 조짐

회원사 네 배가량 많은 경기도 시와 달리 뿌리산업 투자 활성화 지역 업계 상실감에 이전 검토

인천 경제의 '뿌리산업'을 지탱해 온 기계업체의 '엑소더스'가 우려된다. 이들 업체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 온 경인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최근 주사무소를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상실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와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조합은 인천 남동인더스파크 내 위치한 사무소 주소를 경기도 의정부시로 옮겼다. 1962년 조합 결성 이후 인천에서 반세기 넘게 뿌리를 내린 사무소를 이전한 것이다. 조합

은 앞서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던 1981년에 '인천경기'라고 표기했던 조합 명칭을 '경기인천'으로 바꿨다.

문제는 조합 사무소 이전으로 그나마 인천에 남아 있던 회원사들도 경기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사무소 이전 당시에도 회원사들은 인천 잔류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산업을 확대하는 인천보다 육성하려는 경기도 이전이 득이 될 것이라 본 것이다. 조합 회원사 수만 해도 경기도로 가면 1천230여 개로 확대가 가능하다. 반면 인천의 조합 회원사 수는 고작 330개로 그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무소 이전을 앞두고 열린 조합 총회에서 인천지역 기업 상당수가 이전에 찬성했다"며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이 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남구 도화동과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기계산업단지 내 가동 업체 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7개 사(종업원 3천159명)로 줄었다. 한때 이곳 단지 내 가동 업체 수는 500여 곳에 달했다.

공장 이전을 준비 중인 인천의 한 조합 회원사 사장은 "인천시가 '한결 같이' 기계산업을 외면하는 동안 경기도의 경우 수백억 원을 투자해 조합사가 입주할 협동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저렴한 땅값과 운전·시설자금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공장을 이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중국 기자 kjk@kihoilbo.co.kr

SAMSUNG

청정당당 淸淨堂堂

깨끗한 정마가 오고
무더운 여름이 오면
더욱 더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삼성 블루스카이의 무풍에어컨이라면
우리 가족의 공기는 언제나 안심입니다

무풍냉방으로 바람 없이 시원하게
삼성 무풍에어컨 Q9500

초미세 공기청정기
삼성 블루스카이

삼성 공기청정기 필터는 안심
유해성분 제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항균제로 세정한 상용에어컨이 아닌
미유해 항균보조제에
안전한 항균물질로 함유되어 있음

삼성 에어컨 필터도 안심
삼성 에어컨 공기청정 모듈에
적용된 2.5단계는
전기집진 방식이므로
필도 항균제 처리를 하지 않음

인천시체육회, 축구협회장 선거 논란 책임 떠넘기기

행정감사 결과 3주 가까이 침묵 후 스포츠공정위 통해 발표 추진 낙선자 측 '비난 희석 의도' 반발... 관계자 "명확한 검증 위한 것"

인천시체육회가 축구협회장 선거 논란과 관련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낙선자 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시체육회 감사(번호사)로

하여금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통합 인천시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시체육회가 3주 가까이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자, 낙선자 측이 체육회를 의심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낙선자 측 한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한 마당에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체육회가 되돌아 올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시체육회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책"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시체육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합체육회 규약에 명시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 구성에 따라 그 절차를 밟은 후 최종 결과를 스포츠공정위에서 발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주 중으로 법조계, 체육계, 체육연구기관 등 다양한 제3자 기관 관계자 9~15명으로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시체육회는 이번 인천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감사 결과를 스포츠공정위에서 검토하게 해 이달 안에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일단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지만, 그래도 명확한 검증을 위해 스포츠공정위로 그 결과를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택 기자 cyt@kihoilbo.co.kr



도내 대학 도시 재생 맞손

도, 기천대 등과 업무협약 인적 교류~학술자문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해당 대학들은 현재 대학 내에 도시재생 관련 학과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공무원의 도시재생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17일 개강한다. 도시재생대학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16개 강좌를 운영한다. 자세한 강좌 운영 일정과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ggu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6일 기천대, 단국대, 대전대, 인양대 등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내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사진> 도내 권역별로 한 곳씩 선정된 4대 대학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관련 정책 학술 자문 및 연구

해군·경 연평어장 파견 꽃게 어선 안전 지킨다

무선통신 등 통해 피습 방지

인천시가 곧 있을 연평어장의 가을이 꽃게 조업에 맞춰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4일 옹진군 회의실에서 해군수산부와 옹진군, 서해수산연구소, 군부대, 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가을이꽃게어장 안전 조업 대책회의'를 갖고,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평어장은 지역적 특성상 서해 접경지역(NLL)과 인접된 곳으로 국가 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받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먼저 어로구역에 해경 및 해군 함정과 어업 지도선을 배치해 상호 무선통신의 무휴 청취를 가능케 해 어선의 피랍·피습을 방지하고, 어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출어선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어로관계선 월선 조업과 특정해역 무단 조업 등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특히 수산자원 감소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요청한 조기 출어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어민들은 조업 개시일인 9월 1일 이전이라도 물때를 감안해 조급 시기인 26일에 그물을 제외한 어구(돛)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어르신들, 삼계탕으로 더워 이겨내세요. 말복인 16일 인천 계양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호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봉사자들이 삼계탕을 노인들에 대접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더민주 도당 위원장 후보 지방재정개편 반대 한뜻

자치분권민주지도회 초청 토론 전해철·이언주 후보 의견 피력 지방 분권 강화 등 의견도 일치

오는 21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두고 경쟁 중인 전해철(안산상록갑)·이언주(광명을) 의원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민주 경기자치분권민주지도회의(제종길·박승원 공동대표)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당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박상욱 오산시장, 정기열 도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강화 방안에 대한 전해철·이언주 두 도당위원장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들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의 반발이 거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의 어려움을 지자체 간 세수 이동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면서 "지방세수는 확충하고 그만큼 줄어드는 국세는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절차상으로도 정부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지방재정은 지자체의 수많은 역할을 결정하게 되는 데, 이번 일방적 조치를 국회에서 막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전 의원은 "청년수당은 이미 정부(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한 데, 그것을 지자체는 하면 안 되고 정부는 된다는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도당위원장이 최고위원과 격조하게 되면 중앙당 차원에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사회보장법 협의의 조정에 대한 해석 자체를 실무적 부분에 한해 좀더 해석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담긴 지방자치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이러한 위헌적 발상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경기도교육청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남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내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체육시설을 '마사토(붉은 모래)'로 교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납 초과검출 체육시설은 가급적 마사토로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먼저 18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및 3개 고등학교 등 총 31개교에 설치된 41개 체육시설을 우선 교체 대상 시설로 선정해 예비비 20억 원을 투입해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은 총 3억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우레탄 트랙과 노후화된 인조 잔디 운동장을 모두 마사토로 교체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우레탄 트랙 마사토로 교체

도교육청, 예비비 20억 투입 희망 41개교부터 우선 진행

도교육청은 마사토로의 교체에 대해 환경 기준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보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우레탄 체육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18일과 19일 이틀간 각각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나눠 진행한다. 안전한 학교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체육시설 보수 학교 중 개·보수를 희망하는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친환경 운동장 조성 정책 등을 소개하고, 향후 도내 학교의 체육 시설 개·보수 계획이 공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비 외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교육청 자체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우레탄 체육시설의 개·보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해 체육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드림에어(주) 홈페이지 http://www.dreamair.kr

냉/동/공/조/전/문/기/업 드림에어(주)

당사는 향온향습기 등의 냉동공조장비 전문제작 업체로서 제품제작 / 설치 / 시운전 / 사후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 향온향습기 공조기 냉동기(칠러) 제습기 등

제품문의 032)572-5315~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143 FAX 032)572-5317 E-MAIL dair@hanmail.net

인천경제청장 복지부동 1년... 긴 동면에 빠진 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긴 '수면(睡眠)'에 빠졌다. 햇수로 2년이 넘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선6기 시정부 출범부터다. 지금의 IFEZ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긴 수면을 넘어 마치 동면에 빠진 느낌이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효시(曺矢)'란 낙넌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란 원대한 목표는 더욱 찾아볼 수 없다. 정부로부터 2003년 8월 5일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IFEZ가 왜 이 지경에 됐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관련 기사 7면>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사람의 문제'란 말이 나온다. 제4대 이영근 청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다. 인천경제청은 17일 이 청장의 취임 1년을 계기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 A4용지 8장 분량의 자료

7월말 현재 외투신고액 3억3170만 달러 셀트리온 등 2개사 증자·시설 확충뿐 경제청 기업·외자유치 사실상 손놓은 셈 이영근 청장 1년 전 취임 때 호언과 달리 투자여건 성숙 등 상황인식 문제 드러내

다. 자료에서는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IFEZ의 투자 유치 실적이다. 이 청장 취임 1년 동안 14억 7천300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실적을 보이며 투자 유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을 근거로 이 같은 허무맹랑한 수치를 내놓고 자랑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인천경제청이 공식 집계한 FDI 신고 금액은

7월 말 현재 3억3천170만 달러다. 이마저도 ㈜셀트리온헬스케어(1억777만 달러)와 스태츠칩팩코리아 유한회사(1억7천500만 달러) 등이 자본금 증자와 생산시설 확충 등을 위해 신고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천경제청이 거의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손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경제청은 2014년 하반기부터 10개월 넘게 이어진 장기기간의 청장 공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아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투자 유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외투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유를 든다. 이것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 IFEZ 지정 이후 이 같은 문제는 늘 거론돼 왔다. 이 청장이 부임한 지난해 8월 이후 인천경제청이 투자자와 체결한 MOU(양해각서)는 단 3건

에 불과하다. 그것도 올해 들어서는 단 한 건도 없다. 통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의 경우 투자자와의 MOU를 체결한 이후 최소 2~3년 안에 실거래가 이뤄진다. 이보다도 더 늦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청장 부임 이후 신고된 투자금액은 전임 청장의 몫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제4대 청장이 취임한 이후 투자 유치는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이 청장은 지난해 취임식을 끝내고 기자회견에 들러 "새로운 공직자의 길을 열어 준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호언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IFEZ의 투자 여건은 이미 충분히 성숙돼 있어 굳이 예전처럼 공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며 여유를 부렸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IFEZ

의 개발사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당연히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인천경제청장의 마인드가 이 모양이니, IFEZ가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나 수박에 없다. IFEZ는 지금 변화에 목말라하고 있다. 변화를 이끌 선두에 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장실에서 복지부동(地不動)하다 가끔 G-타워 홍보관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의전하는 청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청장이 필요하다. 이 청장은 1년 전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든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그래야 유 시장은 물론 인천시민들에게 누(露)를 끼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연태 기자 jus216@khihoilbo.co.kr



인천시와 인천 가치 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들이 내달 24일부터 열리는 애인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애인 페스티벌 성공 개최방안 논의

가치재창조 범시민대표 간담

인천시는 16일 시청 소집무실에서 인천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

장과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이창운 인천YMCA 회장,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되는 '300만 시대 인천 제1회 애인(愛仁)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시민

및 단체 등 범시민 참여 분위기 만들기 등을 논의했다.

한편, 시는 제1회 애인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17일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전략기획단 회의를 갖는 데 이어 29일에는 애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애인 페스티벌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인천안전체험관 국고 지원 차질

중투위 재검토로 일정 지연

시는 "내년부터 추진" 선회 연말 정부심사 다시 받기로 국가안전처 사업과 맞물려 예산 확보에 어려움 산적

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에 추진하려던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 재검토 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루원시티에 추진하려던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지난 9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당초 루원시티 공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부지면적 1만421㎡ 규모로 국·시비 5대 5 매칭을 통해 총 340억 원의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체험관은 해양·항공안전, 유해물질, 태풍, 지진 등 4개 분야 22개 시설로 구성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중투위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는 정부의 소방안전교부세 170억 원을 끌어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투위는 해당 교부세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가 8

월 중 공포 예정이어서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체험관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 반영을 보류시켰다. 시 재정 부서에서도 현재 시 재정 상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7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정착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이 16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12월 열리는 제4차 중투위에 재상정해 2017년부터 추진하

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4차 중투위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국민안전처의 안전체험관 시·도 지원 계획이 2018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지원을 1년 정도 앞당겨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김홍기의 기호만평

10억엔

나만 걱정해서 주님께 아바 분할해 주신거야!

인천시 공무원 경쟁률 249대 1

16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아 행정직군 371대 1 '전국1위'

인천시의 공무원 경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6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채)' 원서 접수 결과, 인천시 경쟁률이 249.3대 1을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

났다. 이번 지방공무원 7급 공채의 전국 평균은 122대 1로, 전북이 284.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광주 205.8대 1, 경기 196.2대 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경쟁률이 낮게 나타난 지자체는 강원으로 31명을 선발하

는 데 1천591명이 모여 5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은 3명 선발 예정에 748명이 모였다.

행정직군에서는 인천이 371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에 지원한 7급 공채 연령별로는 20대가 6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9.9%, 40대 4.8%로 나타났다. 50세 이상은 4명이 지원해 0.5%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397명이 지원한 남성이 53.1%로 절반을 넘었고 여성은 351명, 46.9%로 나타났다.

또한 10명을 선발하는 연구·지도직에는 772명이 몰려 77.2대 1의 경쟁률을, 6명을 뽑는 기술계고 경쟁에는 33명이 지원해 5.5대 1의 수치를 보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http://misa.booyoung.co.kr

사랑으로 미래를

미사강변도시 A31블럭 「사랑으로」 부영

오늘 8/17(수)은 청약 1순위 접수일입니다.

모델하우스 개관중!

집 앞은 서울 특권! 눈 앞은 강변 특권!

미사강변도시 A31블럭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임대분양!

- 교통 프리미엄**: 5호선 미사역(예정),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특급교통
- 웰빙 프리미엄**: 망월천 수변공원, 조정경가정 하류종합운동장 등 청정자연
- 교육 프리미엄**: 단지 가까이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등 최상의 교육환경
- 생활 프리미엄**: 코스트코백영, 유니온스퀘어백영, 이마트 등 편리한 생활환경

공급일정 1순위: 8월17일(수) 2순위: 8월18일(목)

공급대상: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내 A31블럭
 * 공급대상 및 내역: 임대주택(중·저소득) 10개동 1,104세대 및 임대주택(시장)
 * 자금관리: 시행사 자체관리 * 시공 및 시공: 19부영주택
 * 장기 이직자는 소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직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44-40번지

A31블럭 60㎡ 196세대 / 84㎡ 908세대 총 1,104세대 전국 어디서나 1577-5533 하남미사 모델하우스 031)793-3783~4

과도한 표현 논란 '8·15 선언' 철회

한미 합동훈련 '전쟁 연습'으로 폄하 등 문제 제기 되자 도내 야당 의원들 "참여의미 퇴색" 동참 철회 입장 밝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촉구하는 '8·15 선언문'에 동참했던 경기도내 야당 의원들이 16일 이를 철회했다. 한미 합동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표현하는 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종철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등 경기도내 정치·종교·예술 등 분야별 인사들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 8·15

선언'을 발표(본보 8월 12일자 3면 보도)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에서 815명이 참여한 선언문은 사드(S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철회와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함께 '북을 겨냥한 모든 전쟁 연습의 중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의 주장을 답습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선언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이원욱·소병훈·정재호·김두관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도내 현역 의원 6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옛 통합진보당 인사인 김재연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 의원 5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언문에 '북을 겨냥한 모든 전쟁 연습의 중단'을 요구한다' 등의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합동 연합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 선언문에서 제

시한 내용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만들어진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되살린다는 큰 틀에 공감했던 것"이라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이 선언에 참여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에 선언 동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 대표 측도 사전에 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동참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포천시의회 제119회 임시회가 16일 열리고 있다.

<사진=포천시의회 제공>

독립적인 의회청사 건립 힘쓸 것

인터뷰 한원찬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



"후반기 임기 내에 의회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10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본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청사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의회를 꾸려갈 계획인가.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를 보여왔다.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후반기 시의회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현대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자원이다. 의원들은 이 같은 사회의 흐름에 맞춰 끊임 없이 공부해야 한다. 앞으로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해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특별 위원회나 연구활동에 최대한

양질의 의정서비스 위해 시청서 더부살이 끝내야
의원 연구지원도 나설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원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

-의원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현재 시의회 독립 청사가 없어 시청 본관 지상 3~4층을 공무원들과 함께 쓰면서 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를 비롯해 회의실 부족 등 불편한 점이 많다. 집행부도 시청사 공간이 부족해 인근 상가 건물을 임차해 쓰는 실정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반기 임기 내에 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구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텐데.
▶올해 시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지정하고 연초 2개월 동안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의

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이 같은 정책과 상반되게 외국인 관광객 단체버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차를 일삼고 있다. 인계동은 숙박시설이 집중되어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인근 KBS수원센터의 일부 부지를 임대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임무가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종대 기자 pjd@khihoilbo.co.kr

교통안전 조례 등 13건 심의

포천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의장단 구성 이후 첫 회기

포천시의회가 16일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었다.

제119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금부안 2건과 포천시 리튬배터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포함해 총 13개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임시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9회 임시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가졌다. 17~18일에는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된다.

정종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나타난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이 이번 예산안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부탁드린다"며 "힘들고 어려운 일임수록 시와 의회가 소통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내일 의왕시, 중기청 등과 함께 수출기업 찾아가 애로 청취

의왕시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기관들과 합동으로 수출 현장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 '의왕시 수출 카라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 카라반 공동 개최는 지난 4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중소기업청장 간 수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에 의왕시가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경기중기청은 18일 오전 동(의왕)삼화플라스틱에서 김성제 의왕시장과 서승원 경기중기청장을 비롯해 도내 수출지원기관장들과 지역 내 수출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애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기업 대표가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하면 관련 기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간담회 후 삼화플라스틱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의왕시 수출 카라반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윤승재 기자 ysi@khihoilbo.co.kr

평택 서정동 안심길 조성 '순조'

점촌마을 범죄예방 사업 내달 완공 목표로 공사 중

평택시 서정동 점촌마을은 지난해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의 토대 마련을 위한 5대 시정방침 중 '현장중심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경기도 공모 사업비 5억 원 등을 포함, 7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평택경찰

서 등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환경 특성 분석을 통한 CCTV, LED 보안등, 여성안심길 조성, 안심경로 도색, 생활도로구역(30Zone), 옹기어린이공원 조성 등의 공사가 9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을 적용,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영상정보 운영사업소 통합관제센터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컨트롤타워 2개소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12일 주민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심길 조성 경기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경과 설명회와 안전 컨트롤타워 운영에 따른 찾아가는 안전시설물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체험교육은 심장정지 발생 원인, 응급처치법 등 이론과 자동제세동기 모형을 사용한 실습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범죄 유발 환경 개선과 원도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심리가 최소화되도록 도시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성기 기자 hjk@khihoilbo.co.kr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정재활관



품질 좋은 콘센트, 점보롤 화장지를 소개합니다.



네일클로버 1P, 2P 점보롤 (1BOX 16개)

다양한 종류의 콘센트 우수 내구성 및 품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시면 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 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인정재활관은 정부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30명이 일하고 있으며 콘센트와 점보롤 화장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근로장애인의 임금 및 복지증진에 쓰입니다.

제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시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하여 실적으로 인정 받으며 수익계약도 가능합니다.

구매 상담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3번안길 24 인정재활관 Tel : 032) 574-0457, Fax : 032) 583-4361

‘추경국회’ 열자 청문회 증인 놓고 신경전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정부측 인사 채택 여부 옥신각신 與 “22일 처리 합의 이행” 野 “부실 청문회 땀 합의 무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 막을 올렸다.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보름간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심사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문제,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 여야 간 대립을 야기할 굵직한 사안이 줄줄이 맞물려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부터 쟁점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국민 앞에서 합의한 대로 22일 추경예산안을 순탄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야권에 협조를 요구했다.

또 기획재정부·정무위에서 잇달아 열린 청문회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 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야권에 정쟁 자제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원내대표

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목적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대단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22일 추경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진행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되면,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 없는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당은 그간 ‘선(先) 청문회·후(後) 추경’을 주장했지만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제기 양보한 것”

이라며 “그렇다면 이제 정부·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말했다.

또 23~25일 기재위·정무위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대해 “정부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림에 따라 관련 상임위도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문에 돌입했다.

여야가 기재위(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선(先) 청문회·후(後) 추경’을 주장했지만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제기 양보한 것”

단을 확정짓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에 착수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여야가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하고 본격적인 논의의 시점을 뒤로 미룸에 따라 쟁점으로 남게 됐다.

누리과정 예산 역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진전이 불가피하다.

또 당초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백남기 씨 사건 청문회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위 ▶5·18 특별법 등도 임시국회의 순항을 위협하는 쟁점 현안들이 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첫 기관보고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국정특위 첫 기관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허점 피해사태 이후도 여전히 방치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첫 기관보고 회의를 열고,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점 투성이라는 질타를 쏟아냈다.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실책이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가이아닌(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은 내용을 확

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칫솔모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칫솔” 특허에서 PHMG를 원료로 하는 물질을 항균물질로 처리하는 실시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심사요건에는 안전성 검증항목이 없어 용도특허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이 칫솔모가 규제망을 벗어나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석 의원은 질의 보도자료에서 “유해성 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장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의 3만6천 종 가운데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유해성 시험 실적은 2014년부터는 전무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5천여 종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위원장은 “국조실과 산업부, 환경부의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씀을 한 분이 아무도 없었다”며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안됐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석준 국조실장은 “진정 어린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의 질문에 “위로의 말씀은 다 드렸고, 나름대로 정부로서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변했다. /연합뉴스



유일호 장관, 예결위 출석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황교안 총리. /연합뉴스

“제2 쇄빙선 예타 원만히 진행”

민경욱 “10월에 심의 결과” 인천항 모항으로 지정 추진

새누리당 민경욱(인천 연수)·사전)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민 의원은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고, 이에 김 장관은 “현재의 쇄빙선에 비해 훨씬 성능이 좋고 톤수도 높은 선박을 설계해서 현재 예타 중에 있다”며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2009년 진수된 이후 7년여간 남극과 북극을 오가며 극지방의 환경 변화와 생태계를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으로 북극 연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쇄빙연구선 ‘아

라온호’는 연간 300일 이상 운항함에 연구 수요의 50~60%만 충족하고 있어 제2쇄빙연구선을 건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비 2천850억 원을 투입하는 1만2천t급 제2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금년 10월께 발표되는 예타 결과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께 건조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쇄빙연구선을 운용 중에 있는 극지연구소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만큼 제2쇄빙연구선 모항으로 인천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유섭 “판매금지 생활화학용품 온라인서 유통 중”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위반해 환경부로부터 회수·판매 중단 조치된 생활화학용품들이 퇴출 조치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사진)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7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8배나 초과돼 환경부로부터 판매 금지된 가죽용 세정제인 ‘렉솔 리더 클리너’와 ‘렉솔 리더 컨디셔너’가 퇴출 조치 2주가 지난 지금도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을 초과해 5월 초 퇴출된 가구용 세정제인 ‘파커엔베일리 퍼니처 크림’의 경우도 한 온라인 판매사

이트에서 정가보다 10% 할인돼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환경부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금지 조치된 14개 제품 중 8개 수입제품들은 아마존, 이베이, 알타 등 해외 직점구매 사이트를 통해 자유자재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홍욱 기자 hbj@kohoilbo.co.kr

3개 부처 장관 내정자 프로필

靑수석·여가부 이어 3번 기용

조윤선 문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2년 16대 대선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도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의 비례 대표로 여의도에 입성, 당 대변인 등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 비대위원장이던 2012년부터 측근에

서 보좌해 신임을 얻은 뒤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함께 하며 신뢰를 쌓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뒤 1기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았으며, 2014년 사상 첫 여성 후보를 도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문화예술 분야에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정부수석 등을 역임해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강봉석 기자 kbs@kohoilbo.co.kr

농정전문가로 30년이상 공직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30년 넘게 농업 분야 공직생활을 거친 농정전문가다.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농식품부에서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국장, 주미 대사관 농무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농촌진흥청장장 농식품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aT) 사장으로 임명된 후에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2년 연속 연임에 성공하며 2007년 공공기관 임기제 도입 이후 최초 재연임·최장수 CEO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수급 안정 등과 관련된 주요 사업 분야에서 고된 성과를 거뒀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도 도입에 솔선수범하는 등 전문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강봉석 기자 kbs@kohoilbo.co.kr

재정·경제 정책 전문성 탁월

조경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재정·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 한국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기획예산처 공공1팀장, 사회재정3과장, 혁신인사기획관을 거치고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장, 공공혁신기획관,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복지·노동 업무 등의 예산 업무 조정을 지휘했다.

2013년 4월 기재부에서 국무조정실장 사회조정실장, 2014년 1월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서 7개월 만인 2014년 8월 차관급인 제2차장으로 승진했다.

일처리가 꼼꼼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동료와 선우배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봉석 기자 kbs@kohoilbo.co.kr

여의도 중계탑

성남~여주 복선철 개통 전에 무료은행 검토

**임종성 “국토부 등 긍정 답변”
주민 자연 개통 고통 해소 기대**

수차례 개통이 연기됐던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오는 9월 24일 드디어 개통된다.

개통에 앞서 추석 전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사전)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6일 성남~여주선 개통과 관련해 9월 24일 개통기로 결정했다.

앞서 임 의원은 “성남~여주선의 경우 개통이 수차례나 연기되며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돼 정부와 코레일은 개통 전이라도 무료운행을 통해 이러한 지역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임 의원은 “국토부와 코레일이 추석 전후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임 운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부족한 교통시설로 불편을 겪던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수서~광주 간 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선, 그리고 중부내선의 경우 개통이 수차례나 연기되며 지역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돼 정부와 코레일은 개통 전이라도 무료운행을 통해 이러한 지역민들을

광주=박철교 기자 pcg@kohoilbo.co.kr

140924-중-024998

진료 내과 임, 뇌, 심장, 관절·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인천 서구청 인근 대표전화 1600-8291

동네방네

안산시 반월천 폐천부지 일부 매각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소유 반월천 폐천부지 1천532㎡ 중 하천시설기준의 제방 폭을 제외한 일부 면적에 대해 매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매각을 추진하는 반월천 폐천부지는 부속물산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공장면적 협의소해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연 120만 원의 점유료를 납부하고 있다.

시는 경기도 기업SOS현장 지원단 현장 방문, 경기도 하천과 방문 및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해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폐천부지 관리계획이 보전에서 처분으로 결정돼 매각이 가능하게 됐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양주시 29일 경관계획 공청회

양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관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경관계획의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정하고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경관계획 주요 내용은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 기본 구성 ▶중점 경관관리구역 ▶경관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경관사업 제시 등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hun@khihoilbo.co.kr

남양주 외부상인대학 수강 접수

남양주시 대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 '외부상인대학'의 수강생 모집이 오는 19일 마감된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의 취약한 경영기법과 마케팅, 고객 대응 능력을 높이고 상인들의 의식과 조직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상인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 혁신, 다양한 선진 기법 학습, 선진 상권 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연천군 농업대학 한우과 운영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축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농업대학에 한우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우과에서는 한우 사육의 기본 이론과 친환경 농업 실천 및 전문경영기술을 중점 교육으로 현지 대학교수, 농업인, 전문지도(연구)사, 외부 전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해 과목별 현장교육과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군은 연 25회 100시간 수업을 계획으로 이날 현재 17회를 진행했으며, 11월 29일 졸업식을 가질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시흥 도시농업전문가 2기 양성

시흥시는 2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0월 26일부터 20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흥시생명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며 도시농업의 이해, 농업 기반 조성, 농업기술, 프로그램 활용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을 수강한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시흥시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와 농업을 통한 공동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동체 주말농장 교육, 교과과정과 연계한 도시농업교육 등에 파견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평택 포승산단 해양오염 심각한데... 관리기관은 '네티트 공방'

배수로 통해 하루 2만t 폐수 방류... 해경, 시에 방제 명령 환경부·도, 감독 소홀 드러나... 추적 조사 없어 피해 늘어

평택항과 인접한 포승국가산업단지의 폐수가 배수로로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 서해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평택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승국가산단은 평택항과 인접해 있으며, 서해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2만여t의 공장폐수와 인근 원정리 주택의 하수를 처리한 후 배수로로 통해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산단을 가로질러 바다로 연결되는 길이 2.5km, 너비 6~12m의 배수로에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음에도 배수로 관리주체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한강관리유역청)는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처리 지도·감독,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평택시(재난안전관실·환경위생과)는 배수관문 개폐와 오염물질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로 배수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실제 최근 9개월(2015년 10월~2016년 7월) 동안 일어난 평택항 앞 해양오염사고 6건 모두가 평택시가 관리하는 배수갑문을 통해 오

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경은 최근 평택시에 '해양오염 방제명령서'를 보내고, 포승국가산단에서 방류하는 오염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배수갑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평택해경은 명령서를 통해 ▶오일펜스 설치 등 오염물질 확산 방지 ▶해상 및 관문 아래쪽에 배출된 오염물질 회수 ▶해안에 달라붙은 오염물질 제거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갑문 내 오염물질 제거 후 배수

갑문 개방 등을 명령했다.

또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경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평택항의 배수갑문을 관리하는 평택시는 오염물질을 배수갑문을 통해 그대로 방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배수로에 대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배수로를 통해 유입되는 공장폐수에 대한 추적조사가 이

뤄지지 않아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배수로 관리주체가 있어야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을 추적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배다가 오염되고 있다"며 "해경이 법적 조치를 통해 배수로 관리주체 선정 등 해양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새 학기 고교생 '진로 궁금증' 해소 고양 특성화고생 취업역량 강화

시, 26일까지 4개교서 이력서 코칭·모의 면접

고양시가 지역 내 특성화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2학기 취업시즌을 대비한 알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반'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취업반 프로그램은 고양일자리센터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프레저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직업 설정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직업윤리 ▶직장예절 및 면접 이미지메이킹 ▶실전 모의면접 등 취업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집중 구성해 학생들의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기업체 인사담당자가 바라는 인재상에 맞춰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실전 모의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겪는 면접 능력 향상 등 취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취업반 프로그램은 총 4회로 나눠 운영되는 가운데 지난 10~11일 이틀간 신일비즈니스고에서 진행된 1기 교육에 이어 17~18일 일산국제컨벤션고 2기 대상, 23~24일 경기영상과학고 3기 대상, 25~26일에는 고양고에서 4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메밀꽃밭에 여름 추억 담자 여주시 당남리섬 파종 완료

여주시는 대신면 천서리 당남리섬 메밀꽃밭의 파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조성한 당남리섬 메밀꽃밭은 개화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메밀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구역별로 2차레로 나눠 파종을 실시, 이달 하순부터 한 달여간 볼 수 있다.

메밀꽃밭 전체 면적은 10.5ha이며, 이 외에도 코스모스 1ha를 지난 6월 파종해 메밀꽃과 어우러지도록 준비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김덕수 소



장은 "여주의 새로운 관광지원으로 아름다운 남한강변을 만들어 주를 찾는 이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당남리섬 메밀꽃밭은 탁 트인 남한강변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도 타고 이포보, 파사성 등 주변 볼거리와

함께 천서리 마국수촌에 들러 보는 가족여행 코스로도 제격"이라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u@khihoilbo.co.kr

파주시 전임 비서팀장 '봐주기 인사' 논란

금품 수수 혐의 재판 중에도 1년 넘게 체육공원 관리맡아 특정 업무 채용 목적 어긋나 시 "판결내용 따라 결정" 해명

파주시가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별정직 공무원을 1년 반 가까이 다른 부서에 근무토록 해 탈영을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전임 별정직 시장 비서팀장(6급)이던 A씨를 시 체육청소년과로 인사발령했다.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금

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시는 A씨를 인사발령 후 1년 이상 비서팀장 자리를 비워 놓았다가 16일자로 기술감사팀장을 신임 비서팀장으로 내정했다.

A씨는 현재 시 체육시설인 문산읍 내포리 체육공원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비서업무를 위해 선발된 별정직 공무원을 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한 것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특정 업무를 위해 임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가 아닌 이상 전보나 전직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신임 비서팀장까지 발령을 낸 상황에서 별정직 전임 비서팀장에게 그대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토록 해 시장 측근에 대한 '봐주기 인사'란 지적을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흥 시장 캠프에서 일해 오다 시장 취임과 동시에 비서팀장으로 내정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 인사담당자는 "비서업무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을 선발했다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더라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별정직 공무원이 당초 채용 목적과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해야 된다면 면직을 시킨 후 임기제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다시 채용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인사팀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징계 등 A팀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며 "지금도 비서팀장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체육청소년과로 대기발령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g@khihoilbo.co.kr

군포 초막골 풀장 1만 여명 발길

영유아풀 등 가족단위 인기 공원 내 캠핑장도 함께 운영

군포시가 여름을 맞아 운영한 물놀이장이 많은 사람의 무더위 극복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초막골생태공원에 개장한 물놀이장은 폐장일인 15일까지 1만1천510명이 이용했다.

사각 일반풀, 유아풀, 영아풀,

영유아풀로 구성돼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던 초막골 물놀이장은 하루 평균 524명이 이용했다.

또한 도시하천가운데의 중앙공원에 설치한 초등생 대상 무료 물놀이장은 15일 현재까지 이용객이 지난해 총 이용자 수를 넘어섰다. 지난달 19일부터 24일간 총 2만2천420명(하루 평균 935명)이 이용했는데, 오는 21일까지 운영되면 2만8천 명이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군포 초막골생태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

정등초 생태공원과장은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조성·운영했는데,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 것 같아 보람차다"며 "초막골생태공원에는 사계

절 이용 가능한 '느티나무 야영(캠핑)장'도 있으니 즐거운 여가 생활을 원하는 이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박원규 기자 wkp@khihoilbo.co.kr

과천 일자리센터 1700명에 기쁨

과천시가 일자리센터로 통해 7월 말 기준 1천700명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과천시일자리센터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총 2천494개 업체가 구인 의뢰를 했고, 일자리를 찾는 2천478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알선, 일자리 발굴, 동행면접

등의 형태로 취업시킨 인원은 모두 1천700명이다.

이는 경기도에 제시한 올해 취업목표인원 2천232명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성과로 연말까지 구인 의뢰를 했고, 일자리를 찾는 2천478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알선, 일자리 발굴, 동행면접

취업자는 남성 592명, 여성 1천

시, 올 취업목표인원 76% 달성 연령·계층별 프로그램 등 성과

108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413명이나 된다.

연령대는 50~59세가 25%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 22%, 29세 미만과 40~49세가 각각 19%, 30~39세 16%를 기록했다.

근무 형태를 보면 상용직이 1천

26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240명(14%), 시간제 200명(12%)으로 집계됐다.

센터를 통한 취업은 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뉴딜' 등 연령별·계층별 취업 성공 프로그램을 장단계별로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 면접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윤승재 기자 ysj@khihoilbo.co.kr



이성호 양주시장, 광사동 체험관광농원 조성 현장 점검

양주시는 16일 광사동 나리공원 터널 앞에서 이성호 시장과 국·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관광농원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

를 받았다.

이 시장은 체험농장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국·소별 주관업무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현장회의를 열었다. 양주=전정훈 기자 jhun@

<사진>

정순휘의 국방토크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올림픽 축구대표팀 패배가 주는 국가안보 교훈

지난 14일 아침, 리우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온두라스와의 8강전에서 1대 0으로 패했다. 이 패배의 충격으로 국민 모두가 침통한 분위기로 하루를 보내야 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축구대표팀은 동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기량을 발휘했기에 리우올림픽에 거는 기대는 거의 열광적이었다. 그리고 한국팀 신태용 감독은 영리한 공격축구를 구사했고, 메달권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런 국민적 기대를 허무하게 만들었다. 먼저 한 방의 역습으로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패배를 남긴 온두라스 축구팀은 핀토 감독이 지휘하고 있으며, FIFA랭킹 84위로 우리(랭킹 46위)와는 역대 전적 0승 1무 2패로 한국을 이겨본 적이 없는 약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경기 전 이영표 해설위원은 핀토 감독이 역습축구 위주의 전술적 기습을 예고했고, 한국이 온두라스의 빠른 역습축구를 방심한다면 패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두라스 핀토 감독도 12일 "한국과

아주 힘든 경기가 예상되지만,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국팀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팀은 조별리그에서 역대 최다인 12골을 득점해 평균 4골을 획득했고, 온두라스팀은 조별리그에서 7골, 평균 1.4골로 한국팀과 비교가 안 됐다. 그러나 일부 축구전문가들은 온두라스팀이 한국팀보다 약체라는 근거는 없으며, 지난 6월 한국 원정경기에서 2대 2로 비겼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수비보강을 주문했다.

특히 온두라스팀이 개인기와 스피드 및 조직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전반전에 무조건 선제공격으로 1점차를 획득해야 한다는 점과 기습적 역습에 대비해 수비를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국팀이 1대 0으로 패배해 8강전에서 탈락됐다. 이것이 스포츠전쟁이라면 한국은 온두라스와의 전쟁에서 패전한 것이다. 공격에 지쳐 방심한 듯한 후반 14분 손흥민의 패스 실수를 퀴오토가 차단

해 엘리스에게 패스해 기습적인 1골을 터뜨렸다. 이후 온두라스팀은 소위 '침대축구'를 시작하며 비겁한 경기매너로 비난을 받았지만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다. 경기 후 추가 시간을 향의하는 우리 선수의 모습은 한국팀의 깔끔한 스포츠맨십에 손상을 끼친 불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경기를 지켜본 국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볼 점유율이 71% 대 29%로 한국이 압도적이었으니, 유효 슈팅이 16 대 6으로 일방적인 경기였으니, 아쉬움을 달래지만 이런 말의 성찬(盛饌)은 승부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스포츠를 '전쟁과 전투'에 비유하기도 한다. 남북분단 이래로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정치·경제·금융·문화·체육·예술·관광·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지만 국가 생존의 결정적인 힘은 '군사력'이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축구 약체팀으로 볼 수 있는 북한팀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기습 능력을 보유한 절대우위의 군사력이 있다. 이 한 방을 갖고 있는 점에서 북한팀을 결코 약한 팀으로 깔보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격축구를 하면서도 기습에 철저히 대비하는 수비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고립화전략을 강화되 북한과 중국의 외교복원이라는 기습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특정 선수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말고, 팀워크로 동료를 활용해 득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일부 정치인의 활동보다는 민·관·군의 단결된 국가안보 시스템이 살아 있어야 한다. 더욱이 심판으로 비유할 수 있는 UN조차도 승부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객석의 관중의 아우조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안위는 자위적인 안보실력만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록 올림픽 축구 8강전에서 한국이 온두라스에 패배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는 온두라스와의 축구에서처럼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자만하거나 방심해 기습을 허용하면 그 한 방에 국가안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더 값진 교훈을 남긴 것은 아닐까?

시평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느 나라의 한 장군이 계속되는 격렬한 전투가 소강상태에 이르자 오랜만에 자신의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난 장군은 귀하게 여겨던 찻잔을 꺼내 차를 따랐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그만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놓칠 뻔하자 다른 손으로 다급히 찻잔을 잡아 끼이는 사고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하지만 아끼던 찻잔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줄 알았던 장군의 가슴은 철렁했다. 순간 장군은 조금 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전쟁터에서 아끼는 부하들이

자신의 눈앞에 쓰러져 갔을 때, 적군에 포위돼 자신과 병사들의 목숨이 풍전 등화에 놓여 있을 때에도, 이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일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놀랐다. 병사의 목숨보다 작은 찻잔 하나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그는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장군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장군은 깊은 반성과 함께 그토록 소중히 아끼던 찻잔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렸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아내가 너무 더운니 승용차로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교차로에 멈춰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천천히 회전을 하는

데 젊은 남자 2명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멈춰 섰다.

당시 내 차의 속도는 사람이 걸아가는 것보다도 더 천천히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아들 나이보다도 적어 보이는 한 남자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살기를 느낄 정도로 쉼표하며 지나갔다.

법규를 준수한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위협을 전한 것도 아닌데도 이 같은 젊은이의 행동이 너무 황당했다. 이상고 온 열대현상으로 이어져 도로의 열기가 습사리 식지 않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쓸쓸했다. 자신을 위한 행동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는지. <이천=신용백 기자>

꿈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라

시평

김용식



(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친환경 복합테마파크로 개발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드림파크(dream park)로 개발해 매립지를 황금의 땅으로 만들어 연간 130만 명의 고용창출과 6조4천억 원의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4차협의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해놓은 것은 없다. 식스플래그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장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곳에 있는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을 인천시가 운영해 시민 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고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매립지내 테마파크 건설을 기대하고 있는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식스플래그 테마파크 관련 인천시 투자유치 기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돼 MOU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제 와서 테마파크 건설을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는 것은 꿈수행정도로 보여 한다. 물론 시민 편의시설도 나름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당장의 대안 없는 매립지 종료는 어렵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반입 수수료 가산금으로 주변 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도시철도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 테마파크 등)라는 약속을 믿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시적 매립지한 연장을 감내하고 있는 서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유는 지금 피해지역 서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낙후된 지역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발전이기 때문이다. 서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52만 명이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터이지만,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유해 시설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테마파크 건설보다 재정을 쥐고 있는 인천시가 골프장 등 수익시설에 관심을 갖고 테마파크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시는 서구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세가 투입되어야 하는 공원이거나 체육시설보다는 테마파크 개발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25년 동안 고통을 시달려온 피해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나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서둘러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한 바 있다.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매립지가 테마파크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을 황금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민들을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한 말이다. 하지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상 매립지는 대규모 인구 집중 유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를 받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테마파크 건설이 가능하고, 매립지 관리권 이양문제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지되어 하고, 매립지 토지소유권 인천시 이관은 서울 시의회에서 결정해줘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로 이양,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 실질적 지원 등 4차 협의회 합의사항은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최소 10년간 쓰레기를 버릴 장소(3-1공구)는 벌써 기반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천시가 2016년 매립지 종료 약속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매립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주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파크 조성을 비롯한 4차 협의회 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매립기간 한시적 연장만을 위해 이뤄진 꿈수 합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정부(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4차 협의회를 통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빨리 성공시켜 매립장을 황금의 땅으로 만들어 보라. 그렇다면 꿈수 합의가 아니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기호일보 kihoilbo.co.kr

등록번호 인천가1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인치동 /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준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기아자동차 빌딩 4층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초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판매국 032-761-0013 광고문의 032-761-0002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정정부 032-761-0003 경제부 032-761-0004 사회부 032-761-0005 문화·체육부 032-761-0005
김 단 032-562-2124 계 영 032-547-5947 남 구 032-882-2547 남 동 032-421-1966 동 구 032-764-2775 부 평 032-503-1920 석 도 032-576-4191 송 도 032-831-0797 연 수 032-811-6911 연 안 032-887-7355 연 회 032-561-4189 만 수 032-465-8100	영 중 032-743-2990 중 구 032-772-4909 강 화 010-3330-5204 가 평 031-582-0478 고 영 031-962-5360 안양·과천 010-6354-3259 광 명 010-4574-1964 광 주 010-5204-3470 구 리 031-592-0869 군포·의왕 031-394-0446 김 포 031-897-3030 남양주 031-592-0869
동두천 031-865-2557 부 천 010-5356-8211 성 서 02-313-5962 성 남 031-757-8948 수 원 011-242-6004 시 흥 010-3218-8724 안 산 010-5313-5329 안 성 031-675-2615 양 주 031-858-9393 양 평 010-8916-2106 여 주 031-885-3627 연 천 031-834-1307	오 산 010-9274-3466 신 길 031-285-2283 차 인 031-333-1112 의정부 031-876-8222 이 천 031-634-3312 파 주 031-941-4513 평택 031-653-3132 포 천 031-535-5806 하 남 031-793-4142 화 성 010-9274-3466 송 우 031-543-7871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호한자(畿湖漢字)

木鐸(목탁)

木 나무 목/鐸 방울 탁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인도할 만한 사람을 비유한다. 공자는 55세에 모든 벼슬을 버리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나라를 찾아 국외로 떠났다. 공자는 13년간의 주유전하 후 노(魯)나라로 되돌아온다. 공자는 이 기간 뛰어난 학문과 심오한 사상으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고 가는 곳마다 명성을 떨쳤다. 공자가 위나라 국경부근에 있는 의(衛)라는 고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관문을 지키던 자가 만나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자를 만나고 싶은 모든 만나보았습니다." 공자를 만나고 싶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께서 관직을 떠나신 것을 격정하지 마십시오. 천하에는 도(道)가 없어진 자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선생님을 목탁(木鐸)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鹿鳴>

자연과 함께 숨쉬는 안·스·그·린·월·드

(주)안스그린월드는 고객에게 신뢰받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영역

박람회 / 축제기획 / 기획조정
공간연출 / 꽃 조형물 / 조경식재공사
실내외조경 / 관공서납품
조경유지관리 / 나라장터 쇼핑물

자연을 담아서 자연을 담은 기업
(주) 안스그린월드
AhnsGreenWorld Co.,Ltd.

Tel_ 032)568-8815
Fax_ 032)715-7006
www.ahnsgrnworld.co.kr

청각장애인 보청기지원 대/폭/확/대

인천연수센타
굿모닝보청기

<청각장애인 부담료>

~차상위계층 : 무료
일 반 : 131,000원
(최신형 고급 보청기)

★청각장애 / 절차상담

★최신 검사장비보유★

★의리기기 등록업체★

Starkey Group
www.인천보청기.net
무료청력검사
862-1661
연수구 나사렛국제병원 옆 삼성프라자 5층

인천1호선 동춘역 4번 (버스환승: 나사렛국제병원 하차)

기호포럼 김준기



인천대 외래교수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직은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한 갑주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특히 한류를 비롯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한국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수천 년간 일본만큼이나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겹게 한 민족이었다. 한민족의 역사는 국력과 문화적 역량을 무기로 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시달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축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를 완벽하게 격파해 우리 땅에서 내쫓은 전력도 있지만 중국은 조선에 사대의 원조 민족이었고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한 결정적인 국가였다. 아무리 한국이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도 중국은 여

히 북한의 맹방이다. 남북한에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국가이지 남한이 북한을 막는데 도움을 줄 국가가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을 개발해 이를 실전에 배치하고 남한에 대한 위협과 긴장을 극대화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아 왔으며 사드 문제와 무관하게 앞으로 이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주장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여기에 남한의 핵개발 역제는 미국 손에 맡기고 북한의 핵개발은 방조해 협박이 잦다.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6자회담의 함정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리 북한을 설득하고 달래도 절대로 북한 정권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핵과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10대 군사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가 무색하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국가이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정거리를 철저히 통제받는 동안 북한은 전

미국과 중국 사이

중국의 간섭 없이 마음껏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 미국은 앞으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이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 감시용이라고 중국이 아무리 의심하고 억지를 부려도 한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히 요격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실용성이 제한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방어장치 외에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변변치 않다. 만일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한미동맹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을 것이다. 북한의 유일한 우방은 중국이듯이 전세계에서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은 미국이다. 미국과의 동맹에는 미국의 군사적 이익도 걸려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국의 안보적 이익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드 배치는 한국에 단순한 전략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활적 문제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조차도 중국은 대국에 걸맞지 않게 과도하게 자국의 이익에 집착하는 국가임을 눈치채고 끝내 중국을 믿지 않았다. 중국은 지금까지 힘으로 주변 약소국을 억박지

르고 집요하게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 왔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2000년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로 관세를 대폭 올린 것에 대해 한국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하는 막무가내식 무역 보복을 일삼았던 국가가 G2국 중국이다. 다른 나라의 앞바다에서 자국의 어선이 어종의 씨를 말려도 못본 척 나몰라라 하는 국가 또한 초강대국 중국이다.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중국은 장차 큰 위기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회이자 디딤돌이다. 기회는 단독으로 얻으면 되지 만 군사적·안보적 위기는 당분간 미국과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이른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사대(事大)는 경제, 군사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큰 나라를 다루는 솜씨만 세련되면 안정된 경제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에 끝내 중국을 믿지 않았다. 중국은 지금까지 힘으로 주변 약소국을 억박지

사설

누리과정 예산 논쟁, 반복해야 하나

경기도의회 여야 합의로 긴급 수혈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이달 말로 바닥날 것으로 보여 도내 보육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가 되면 으레 터지는 갈등이다. 매년 같은 사안을 놓고 교육부는 “정부에서 재원을 내려보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재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립이 반복되다 보니 심지어 익숙한 느낌마저 든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지난 달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지원에 투입된 교육협력사업비 498억 원이 이달 말이면 소진된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이달 말로 지원이 끊기는 유치원 누리과정비 4개월분 1천641억 원을 담은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심의를 앞둔 도의회는 또다시 난제에 부딪치게 됐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정부·국회가 추경이나 예비비 등으로 해당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보육대란 논란이 재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16일 시작된 국회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시·도교육청이 요구하는 1조8천억 원가량의 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담기지 않은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뾰족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는 추경(안) 처리에 앞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견해차가 워낙 크다 보니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려면 관련 법적 문제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맡기려면 보건복지부와 2원화돼 있는 어린이집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교부금 액수 자체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어긋나 위법이라는 것으로, 이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논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논쟁을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정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제는 반복된 갈등으로 쌓인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줘야 할 때다.

특별기고 김민기



(사)인천연인클럽 명예회장

요즘 인천시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의 통합 체육회로 출범한 이래 계속되는 구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일간지들이 연이어 인천시체육회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인천시청 수영팀 재입단 여부가 조만간 확실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박태환 선수의 재입단 과정이 체육회 담당 부서를 비롯, 지역 수영계와의 공론화 없이 인천시와 체육회 고위간부간의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는 것이다. 체육회가 박태환의 재입단을 서두르는 이유는 16일부터 참가 신청이 시작된 전국체전 때문이다. 현재 박태환은 서울시 소속 선수이고 박태환 수영장은 인천에 있는 아이리니한 광

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태환의 인천시 재입단 과정에서 벗어난 체육회 내의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인천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임 부회장이 직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적 운영으로 체육회 내부의 갈등과 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체육회 일각에서는 박태환의 재입단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인천 태생도 아닌 선수의 이름을 딴 인천 박태환수영장이란 체육관을 설립한 자체가 인천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주체성 없는 일로 언젠가 박태환 선수가 타 지역 소속 팀으로 인천시 수영팀과 대결을 벌일 것은 생각 안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 인천시 선수들은 인천에 있는 박태환수영장에서 박태환을 이기려고 훈련할 때가 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곳에는 그 지역 출신의 운동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 거리 등을 건설해 우수 선수 발굴과 내 고장의 우수성과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강원도 삼척 마라톤 황영조기념

인천의 박태환 수영장

관 ▶수원 영통구 축구 박지성기념관 (축구센터) ▶전남 고흥 거금도 레슬링 김일체육관 ▶인천 동구 동산고등학교 앞 야구 류현진거리 ▶충남 공주 공산성 진입로 야구 박찬호골목 ▶전남 화순 배드민턴 이용대체육관 등을 비롯해 20여곳에 내 고장 출신 선수들을 기념하고 기리고 있다. 이 같은 선수 이름을 사용한 기념관과 거리 등의 공통점은 모두가 해당 지역 출신 선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훌륭한 스포츠 스타들을 배출한 지자체들은 이토록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랐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건립하고 해당 선수들의 이름을 붙여 홍보하고 있다. 현대 박태환수영장의 인천 소재는 어떠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업적을 내세우기 위한 한시적 방법의 하나라면 이는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재입단을 추진하고 있는 박태환은 2014년 인천시청 소속으로 연봉 3억 원 정도를 받았다. 체육회 관계

자 말로는 박태환 부친이 충남 등 1~2개 지역의 유혹을 뿌리치고 인천 입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인천이 원한다면 갈 수 있다는 배짱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지난 연말 새로 발족한 통합 인천시체육회는 지금도 체육회 임원(이사) 구성에 전문 체육인이 한 명도 없어 체육인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의 신임 임원 선출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맡은 감사를 뺀 이사 22명 중 경기인 출신의 체육인이 단 한 명도 없어 이 사건 선정에 특정 인물의 인맥으로 이뤄졌다는 파행적 인사라는 꼬리표가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다. 인천 체육회는 현재 100여개 단체, 20여만 명의 회원이 속한 거대 기관으로 커진 지금 이에 합당한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출범한 지 몇 달 안된 팀 시체육회가 자체 감사 중인 통합 시체육회장 선거 문제, 이번 대두되고 있는 박태환 선수 재입단과 박태환수영장 명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인천도시철 2호선 시설물 보강 서둘러야

개통 첫날부터 기기 오작동 등으로 탈도 많았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다. 개통한 지 수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사고철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호선은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무모차 끼임사고가 발생한 독정역은 법정 기준인 5cm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천장애인지원센터는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은 5cm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공사 7.5cm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독정역의 경우 승강장과 열차 간격은 이 규정마저도 초과한 8~9cm로 나타났다”고 한다. 규정이 잘못됐다면 고쳐야 한다. 독정역 끼임사고의 경우 여성 승객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승차하던 중 한 아이의 발이 승강장과 출입문 사이에 끼이는 사고였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사고는 일반 보통의 안전사고와는 다르다. 자그마

한 하자라도 발생하면 그 결과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는 지나간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하지만 우리는 곧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잊곤 한다. 언제나 사후야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음이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와 교통 안전당국이다. 답답한 답변만 늘어 놓는 당국이라 하니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초윤장산(趙潤張山), 주춧돌이 축축해지면 비가 내릴 징조이니 우산을 준비하라 했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시당국이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느 날을 기다려 세우려 하는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차연의 주장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을 즉각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최고의 맛, 최고의 육질

강화갯벌장어영어로조합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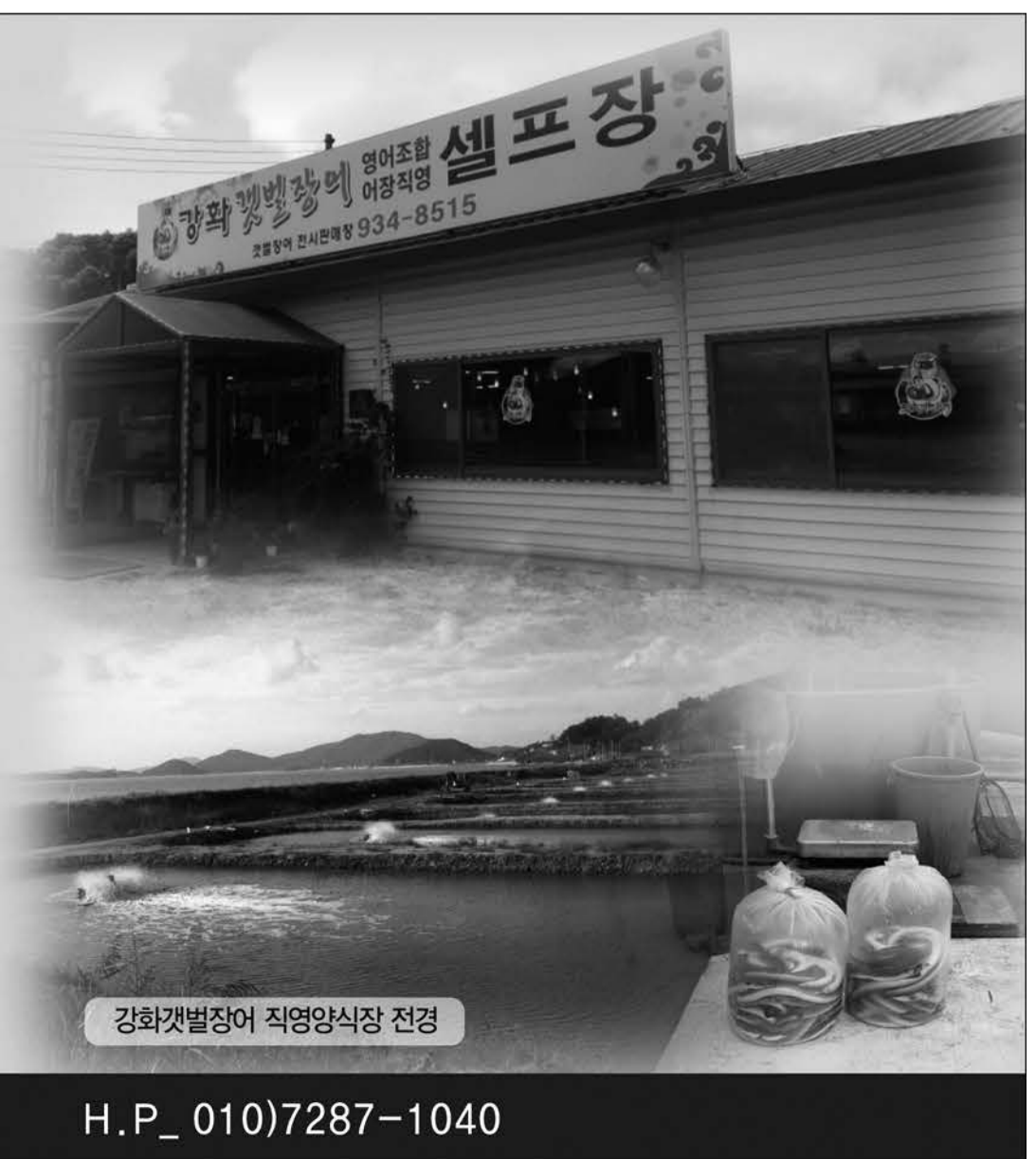
강화도 청정갯벌에서 75일 이상 순치시킨 강화갯벌장어 직영어장 운영에서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 자가운영시스템 시설과 함께 외포리 직영식당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당개업시 환영하며 빠른시간내 영업장까지 배달하겠습니다. 최고품질의 강화갯벌장어를 만나보세요.

※ 단체예약환영

 <p>손질된 강화갯벌장어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 할 수 있도록 뼈와 내장을 손질한 강화갯벌장어</p>	 <p>강화갯벌장어엑기스 대추, 생강, 마늘, 오가피를 넣은 영양만점 장어 엑기스</p>	 <p>강화갯벌장어통조림 완전히 익힌 갯벌장어를 먹기 좋게 지른 강화 갯벌장어통조림</p>	 <p>건새우, 새우가루 100% 참가물NO 강화도에서 잡은 홍새우를 생물 건조한 건강한 먹거리</p>
--	---	--	--

강화갯벌장어 직영양식장 전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중앙로 1277 Tel_ 032)934-8500 H.P_ 010)7287-1040



90년대 추억 속 명작, 극장서 줄줄이 부활

‘굿 윌 헌팅’ 등 오늘부터 재개봉
‘연인’ 24년 만에 무삭제판 상영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추억의 명작들이 잇달아 재개봉된다.

16일 영화계에 따르면 2014년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1951~2014)의 대표작 ‘죽은 시인의 사회’(1990)와 ‘굿 윌 헌팅’(1997)이 17일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동시 개봉한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영국의 입시 명문 엘튼 고등학교에 부임한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선생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영화.

‘굿 윌 헌팅’은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호흡을 맞춘 작품이다. 천재적인 두뇌를 지녔지만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반항아 ‘윌

헌팅’(맷 데이먼)이 MIT 심리학과 교수 ‘존 맥과이어’(로빈 윌리엄스)를 만나 변화하는 과정을 그렸다.

프랑스의 세계적 작가인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자전적 동명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 ‘연인’이 24년 만에 무삭제판으로 상영된다. 프랑스 식민 치하에 있던 1920년대 베트남을 무대로 가난한 10대 프랑스 소녀와 부유한 중국인 청년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그렸다. 장자크 아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영국 여배우 제인 마치와 홍콩 배우 토니 룽의 노골적인 정사 장면 등으로 1992년 개봉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달 31일 상영되는 ‘비포 선셋’은 리



왼쪽부터 영화 ‘굿 윌 헌팅’, ‘포레스트 검프’, ‘연인’의 한 장면.

처드 림클레이터 감독의 ‘비포 선라이즈’에 이은 ‘비포’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다. 빈에서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9년 뒤 파리에 재회한 제시와 셀린느의 사랑 이야기로, 영화 속에 파리의 숨은 명소들이 등장한다.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는 9월 8일 극장가를 찾는다. 지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편견을 딛고 성공하는 소년 ‘포레스트 검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렸다.

빅뱅 데뷔 10주년 ‘기념 기부’로 축하

유니세프와 합동 프로젝트 진행

그들 빅뱅<사진>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유니세프와 함께 ‘기념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생일이나 졸업, 입학, 결혼, 입사 등 기념일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유니세프의 ‘기념 기부’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후원을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이번 달은 지드래곤의 생일(18일), 빅뱅 데뷔 10주년 기념일(19일),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20일) 등 뜻깊은 기념일이 많다. 이에 빅뱅은 팬들과 함께 이를 특별하게 기억하고자 이번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니세프기념기부X빅뱅 해시태그를 달아 기념일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친구 3명을 초대하거나 유니세프 ‘기념 기부’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2	MBC	SBS	OBS	EBS
5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강극장	5:00 여기는 리우 <사이클-남 경원2R-결승, 레슬링-남 그레코 66kg 결승, 배드민턴-여단 8강, 다이빙-남 3m 스프링보드 결승> 7:50 리우 올림픽 하이라이트	5:00 2016 리우 올림픽<배드민턴-여자 단식 8강전> 7:00 MBC 뉴스 투데이 7:30 2016 리우 올림픽 <육상-남자 높이뛰기결승, 여자 1500m 결승, 남자 110m 허들 결승>	5:00 리우 2016 <레슬링-남 그레코 66kg 3/4위전-결승, 배드민턴-단식 8강> 7: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7:30 리우 2016	6:00 OBS 경인포커스 6:55 OBS 전직 인터뷰 7:05 TV주치의 무병장수 7:15 경인 불 7:45 OBS 뉴스	5:00 EBS 생활 영어 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6:10 세계의 눈 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주사위 오정 큐비슈 45 뽀롱뽀롱 보로로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9:40 여기는 리우 <육상-남 400mH 준결, 여 200m 준결 등>		8: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10 리우 2016 <육상-여자 1500m 결승> 9:30 위대한 유산 > 남 110m허들 결승>	8:10 독특한 연예 뉴스 8:45 경기도 정책을 말한다 9:35 위대한 유산 9:45 OBS 뉴스	8:00 당동명 유치원 45 방귀대장 뽀롱이 9:00 출동! 슈퍼왕스 40 라이벌 토크 부모
10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11:50 안영 우리말	11:00 생생정보 스페셜	11:00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48화>	11: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30 물은 생명이다	10:05 드라마 극장 <말이> 11:15 고수의 손맛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30 한국 기행 18:40 박종진 라이브쇼 17:50 워킹맘 육아대디 22:00 차의법관
12	12:00 KBS 뉴스 1: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12:00 KBS 특별기획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12:00 MBC 정오 뉴스 12:2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담 썸 썸 리우>	12:00 SBS 뉴스 12: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12:05 명불허전 1:05 두부의 맛	12:00 EBS 정오 뉴스 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45 EBS 초대석 1:40 사이타 시즌3-왔다! 사춘기
2		2:00 KBS 뉴스 타임 2:10 세상모든 다큐 3:00 자랑스러운 위키2 3:30 TV 유치원	2:20 텔레몬스터 2:25 드림주니어 스페셜 2:55 텔레몬스터 3:00 MBC 뉴스 3:10 옐로키즈 야해 동물탐험대 3:55 모두모두 쇼	2:00 열린TV 시청자 세상 3:00 3시, 뉴스브리핑	2:05 책과 광 3:00 미앤마이로봇 3:45 OBS 한마음 음악회 <2016 국제청소년 캠페인>	2:00 한국 기행 3:00 미앤마이로봇 3:00 오키와 친구들 3:5 호기심나라 오기도 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4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 5:30 동물의 세계	4:00 다큐멘터리 3일 5:00 비타민	4:25 MBC 일일 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5:00 MBC 이브닝 뉴스	4:30 고향이 보인다 5:00 고블라즈 5:30 SBS 뉴스퍼레이드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말이>	4:00 출동! 슈퍼왕스 30 방귀대장 뽀롱이 45 당동명 유치원 5:30 꼬마버스 타요 45 뽀롱뽀롱 보로로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5 사람과 사람들	6:00 KBS 뉴스타임 6:20 올림픽 투데이 7: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다시 시작해> 7:55 MBC 뉴스데스크	6:05 생방송 투데이 <마더가사카로> 7:20 일일 드라마 <당신의 선물>	6:55 BBC 휴먼기획 <마더가사카로> 7:45 OBS 뉴스 M	6: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7:00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50 글로벌 아홉 찾아 삼만리
8	8:25 일일 연속극 <별난 가족> 9:00 KBS 뉴스9	8:30 여기는 리우 <골프-여 1R, 배드민턴-남단식 8강, 태권도-여 49kg, 남58kg 예선>	8:55 2016 리우 올림픽 <여자 골프-1라운드, 태권도-여 49kg, 남58kg 예선>	8:00 SBS 뉴스 8:55 영재발굴단	8:35 오늘의 월드 뉴스 9:05 독특한 연예뉴스 9:40 TV주치의 무병장수 9:50 리얼 대탐험 <대자연의 경이>	8:40 다큐 오늘 50 세계대마기행 16:20 남과 함께 시즌2 18:55 맛있는 녀석들 21:50 백종원의 3대천왕
10	10:00 2016 리우 올림픽 11:10 KBS 뉴스라인 11:40 2016 리우 올림픽	10:00 KBS 특별기획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11:10 여기는 리우 <탁구-남 단식 3.4위, 골프-여 1R, 배드민턴-남 단식 8강, 태권도-여 49kg, 남58kg 예선>	10:00 수목 미니시리즈 <W> 11:10 2016 리우 올림픽 <배드민턴-남자 단식 8강전, 여자 골프-1라운드, 태권도-여 49kg, 남58kg 16강전>	10:00 드라마 스페셜 <윌티> 11:10 리우 2016 <탁구-남 단식 동메달 결정전, 배드민턴-남 단식 8강, 태권도-여 49kg, 남58kg 16강, 골프-여자 1R>	10:45 OBS 뉴스라인 11:05 연마의 불날	10:45 EBS 초대석 1:05 나하오 차이나 45 세상의 모든 법칙
12	12:50 2016 리우 올림픽 3:00 2016 리우 올림픽	12:20 여기는 리우 <배드민턴-혼복 결승> 1:30 여기는 리우 <골프-여 1R>	2:10 2016 리우 올림픽 <여자 골프 1라운드, 태권도-여 49kg, 남58kg 8강-준결승>	3:00 리우 2016 <태권도-여 49kg, 남58kg 8강, 골프-여자 1R>	12:05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1:00 행복 부동산 연구소 1:45 고수의 손맛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1:30 냉정고를 부탁해 14:30 JTBC 뉴스 현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를 22:50 아는 형님스페셜 ◇ TV조선 07:4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09:00 김광일의 심통방통 16:10 윤슬기의 시사Q 18:40 박종진 라이브쇼 20:0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건축열 ◇ 채널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30 시사 인사이트 14:50 직언직설 16:20 레드나미 19:20 채널A 종합뉴스 23:00 나는 몸신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드라마 06:20 내 마음의 꽃비 08:20 태양의 후예 13:00 함부로 애틋하게 17:00 여자의 비밀 22:00 열애는 고순도치 시즌2 23:10 연인들의 슬럼프 ◇ MBC드라마넷 07:30 나 혼자 산다 10:50 W 13:50 화환사성 16:30 좋은 사람 17:50 워킹맘 육아대디 22:00 차의법관 ◇ SBS드라마 07:30 세프끼리 2 11:30 당신은 선물 13:00 직언직설 14:30 끝에서 두번째 사랑 17:10 닥터스 20:00 원티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N 08:50 CSI:Cyber 시즌2 13:00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15:20 설국열차 17:50 타이콘 2 19:50 캐리 21:50 퍼스트 어벤저 ◇ 채널CGV 09:30 아스테릭스:신들의 전쟁 12:30 황금나침반 14:30 베스트 키드 17:10 노영 19:30 다이하드 2 21:50 차의법관 ◇ 스크린 09:00 금의위: 14명의 비밀 11:00 위아영 16:00 왕귀비 : 왕조의 여인 19:00 갯벌 21:00 대부 3 23:00 사무소포
연예·오락	스포츠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net 08:20 언프리티 랩스타3 11:20 M COUNTDOWN 14:00 너의 목소리가 보여 3 17:20 Daily Music Talk 20:30 Live on M 23:00 히트 스테이지 ◇ 코미디TV 08:55 비정상회담 10:25 코미디 빅리그 13:10 무한도전 16:20 남과 함께 시즌2 18:55 맛있는 녀석들 21:50 백종원의 3대천왕 ◇ tvN 07:00 응답하라 1994 12:30 싸우자 귀신아 16:10 삼시세끼 고향편 19:20 광순준의 콜가당 21:40 수미사시회 23:00 히트 스테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N 스포츠 12:00 2016 리우올림픽 18:00 2016 리우올림픽 중계식 14:0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18:20 2016 KBO 리그 <롯데:백전, 고척> 22:00 I LOVE 베이스볼 시즌8 ◇ MBC 스포츠 플러스 11:00 2016 메이저리그 <시애틀 vs LA 에인절스> 18:00 베이스볼 NOW 18:30 2016 KBO 리그 <두산 vs 한화, 청주> 22:00 베이스볼 투나잇 ◇ SBS 스포츠 08:00 리우 2016 여자배구 8강 13:00 리우 2016 메달리스트 남자 양궁 개인 구분전 18:15 2016 KBO 리그 <삼성:NC, 마산> 21:50 2016 베이스볼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08:00 라이브 투데이 09:50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50 투나잇 23 ◇ YTN 08:00 이슈 오늘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p>NIB 남인천방송(채널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30 네트워크 인천 10:00 모니터톡 행복수다 11:00 NIB 팜팡 노래교실 15:30 2016 시청자 세상 19:00 NIB뉴스 20:00 2016간강플러스TV홀더 		

오늘의 운세

(김백창·수원창학자연구소)
靑龍電話 010-5393-0358

子 36년생 갑자기 연락해 오는 사람을 조심할 것.
48년생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이 많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60년생 집중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저지룰 수 있다.
72년생 심신이 즐겁고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겠다.
84년생 시비, 다툼을 피하고 신중할 것.

丑 37년생 당신의 아량으로 전체가 행복하겠다.
49년생 이성으로 망신살이 뺄 수 있다.
61년생 나뭇가지가 앙고 영겨드니 매사 안 된다.
73년생 남의 말을 들으면 일을 망치게 된다.
85년생 사소한 곤에 문제가 있으니 세심하게 살필 것.

寅 38년생 변화가 오고 있으니 대비하라.
50년생 의외의 행운이 있겠다.
62년생 욕심내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 것.
74년생 흥미로운 일이 생기겠다.
86년생 재물운이 좋은 하루이다.

卯 39년생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
51년생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겠다.
63년생 운수가 불길하니 절제를 조심하라.
75년생 주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87년생 취미생활 등에 관심을 가져볼 것.

辰 40년생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52년생 바쁘게 움직이지만 소득은 별로 없을 듯.
64년생 중요한 일은 내일을 기약하라.
76년생 허세부리다 망신당할 수 있으니 자제할 것.
88년생 문서로 인해 손해 볼 수 있다.

巳 41년생 친구를 너무 믿지는 말 것.
53년생 행적이 우려되니 매사를 조심할 것.
65년생 큰 문제를 자초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77년생 분주하지만 실속이 없는 하루.
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적기.

午 42년생 용기가 필요한 날.
54년생 건강이 열려되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66년생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겠다.
78년생 뜻을 모아 세를 이루면 큰일도 해낼 수 있다.
90년생 오늘은 남쪽으로 가면大吉하다.

未 43년생 마음 편한 하루 보내겠다.
55년생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여 결정할 것.
67년생 고민에서 해방 되겠다.
79년생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다.
91년생 경쟁이 심하니 조금 시자를 두라.

申 44년생 다투지 말고 잘 타협하라.
56년생 집안일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결정할 것.
68년생 장거리이동은 신갈 것.
80년생 육체적으로 힘든 하루지만 보람은 있다.
92년생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酉 45년생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57년생 고집과 자존심은 잠시 접어보라.
69년생 기다리던 일이 지체되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81년생 타협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할 것.
93년생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

戌 46년생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하는 날.
58년생 어떤 일을 하든 원만하게 보낼 수 있겠다.
70년생 새로운 곳으로 진출하면 성과가 있겠다.
82년생 고민했던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린다.
94년생 남에게 허술하거나 약한 모습 보이지 말 것.

亥 47년생 과음은 삼가고 취중발언은 하지 말 것.
59년생 보충부족은 유연하게 대처하여 회피하라.
71년생 매해 계획이 있다면 오늘은 참을 것.
83년생 위기상황은 사전에 막아야 할 일 없다.
95년생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섭섭하고 답답하다.

강화 우/성/공/업/사

H빔공사 · 조립식판넬 · 공장신축 · 전원주택 · 축산시설 · 잡철공사전문

성실시공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성 공업사가 되겠습니다.

주소 :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34(남산리27) TEL : 032)933-3125 H·P : 010)5274-3126

남녀노소 '사랑티켓'으로 공연보며 감성 충전

인천문화재단, 청소년·노인 문화활동 관람료 일부 지원
이달 말까지 수봉문화회관 등서 아동·무용·마임극 선택

인천문화재단이 청소년과 노인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랑티켓 8월 작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아동극 '돈키호테(21일·인천어린이과학관 1층 공연장) ▶무용극 '신데렐라(26~27일·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연극 '2016 마임 쇼쇼쇼(MIME Show Show Show·31일·인천수봉문화회관)' 모두 3개 작품이다.

아동극 '돈키호테'는 마치 스페인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생동감이 넘치는 무대로 아동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극 '2016 마임 쇼쇼쇼'는 흥미롭고 유쾌한 공연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가까운 공연장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이번 선정 결과의 특징이다.

한편, '사랑티켓'은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이다.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를 통해 회원가입한 개인의 경우 공연 한 건당 60%(최대 2만 원 한도), 연 1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기자 kik@kohoilbo.co.kr



◀ 아동극 '돈키호테'.

◀ 연극 '2016 마임 쇼쇼쇼'.



▲ 무용극 '신데렐라'.

하남문화재단 '해저탐험전' 성황
28일까지 바다생물 체험존 등 진행

하남문화재단이 휴가철을 맞아 기획한 '해저탐험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름철에 알맞은 바캉스 느낌의 콘텐츠로 기획 전시됐기 때문이다.

16일 하남문화재단에 따르면 해저탐험전은 시원한 바다 느낌의 전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시회는 신기한 생물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작품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관람, 디지털 인터랙티브를 이용한 바다생물 체험존도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또 가족들과 재미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포토존과 퍼즐, 그림,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무더위를 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관람객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 전시 프로그램 진행 과정은 약 60분이 소요된다.

해저탐험전에는 7월 한 달간 3천여 명의 관람객이 파죽을 쳤으며, 이달 들어서는 예약 또한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하남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열린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ohoilbo.co.kr

덩실덩실~ 술 대신 음악에 취해보요

성남시, 19일 '행복콘서트' 개최
어린이합창단·재즈공연 등 준비
건강한 음주 홍보부채 만들기도

성남시는 오는 19일 건강한 음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16. 음악에 취하다 행복콘서트'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건강음주문화협의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각종 공연과 건강 음주문화 실천운동이 펼쳐진다.

티움어린이합창단의 '도레미', '나가거든', 인디 재즈그룹 음악일기의 '타임 투 러브', '소 나이스', 인디 록그룹 와이 스토리의 '열대야', '너에게로 떠나는 여행' 등 다양한 공연을 함께할 수 있다.

건강음주문화협의 네트워크는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위탁기관)가 주축으로 2006년 4월 발족,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 43개 단체 500명이 속해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ohoilbo.co.kr



개는추첨을 통해 CGV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준다.

앞서 지난 4월 '건강한 회식문화 만들기'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로 뽑힌 7개 단체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제15회 항공정비대의 '상명하달, 획일적인 회식이 아닌 문화·봉사활동 등의 테마 회식', 시청 아이사랑놀이터의 '재능기부로 서로 배우기 회식', ㈜인포뱅크 사내 동호회 IB광풍의 '술 대신 탁구회식' 등이다.

건강음주문화협의 네트워크는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위탁기관)가 주축으로 2006년 4월 발족,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 43개 단체 500명이 속해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ohoilbo.co.kr



물놀이~공포체험 '더위 탈출법' 한가득

에버랜드·캐리비안 베이 추천
파도풀~호러메이즈 즐길거리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가 막바지 피서객들을 위해 물놀이 체험부터 호러 체험, 유포미 체험까지 테마별로 다양한 추천 코스를 마련했다.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에서는 최대 2.4m 높이의 인공 파도를 맞으며 시원한 해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이색 물놀이 체험을 원한다면 매일

2~3회씩 펼쳐지는 에버랜드 '스플래시 퍼레이드'에 참여해 보길 추천한다.

스플래시 퍼레이드<사진>의 '빅 제미'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비웃과 물총은 필수다. 사방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오며 온몸을 흥분시키고, 피날레에는 객석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모두 광장으로 나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잊지 못할 물총 싸움을 체험할 수 있다.

에버랜드 '호러메이즈'에서는 오싹함으로 여름 더위를 날려 버린다. 지

난 7월 23일부터 호러메이즈1을 운영중으로 호러메이즈2는 9월 1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여름철 태양을 피하고 싶다면 오후 10시까지 오픈하는 야간 개장을 이용하면 좋다. 에버랜드 장미원에는 컨버전스아트를 통해 인상주의 화가들의 명화(名畵)를 생생하게 구현한 '빛의 미술관'을 올해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매일 오후 포시즌스 가든 주변에서는 야간 퍼레이드 등 공연들이 진행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ohoilbo.co.kr

인터넷주소 청학물장, 청학유치원

문학산 청학(숲속)물장

부설 청학숲 유치원

7월 16일 (토요일) 개장!!!

- ▶ 문학산 해발 100m 고지, 울창한 숲! 맑은 물!
- ▶ 문학산 약수터에서 나오는 산수
- ▶ 맑은 공기 시원한 산바람
- ▶ 최신 시펄터 정수기 사용
- ▶ 성인물장 / 유아물장 / 영아물장

오시는 길: 문학산 (구)청학물장, 송도유원지, 송도초교, 국민은행, 문학산, 문학산 (구)송도역, 문학산 (구)송도역, 문학산 (구)송도역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신27 교동편, 시내버스: 112, 46, 65-1번 마을버스: 523번 (6, 8번은 송도역 하차)

문의·전화 032-832-0135

안락계산동 계산자연수영장 (풍)

7월 16일 개장

올 여름엔 계산자연수영장에서 만나요~

- ▶ 샤워장 무료
- ▶ Culligan 정수기 사용
- ▶ 넓은 주차장 확보

오시는 길: 예비군 훈련장, 김포-계산, 우미관, 서구청-검단, 부평, 인타제인지, 부평역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55-1 교동편, 버스1번, 79번, 770번, 계산동 자연물장 하차

취사가 가능 Tel. (032)545-3700

http://www.deawon.net

대한민국 1등 P.P포대 생산업체 (주)대원실업사

KIBO 벤처기업 ISO9001 인증기업 기술특허 10건 보유 직적생산증명업체 Q마크 인증기업(불연성 봉투)

생산품목: ▶ 불연성 종량제 봉투 ▶ 재활용 마대 ▶ 택배용 행낭 포장대 ▶ 재해대책용 수방 포대 ▶ 기타제품

주소: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17 TEL_ 031)761-4141 / HP_ 010-6666-8139

(주)대원실업사



식사·운동관리 모바일로 척척

광주시보건소-눔코리아, 건강관리 사업운영 MOU

광주시보건소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회사눔코리아(Noom Inc) 정세주 대표와 모바일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눔코리아와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눔의 모바일 건강관리 솔루션 '눔 헬스' 앱을 30~50대 건강 고위험군 15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눔 헬스'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해 개인별 최적화된 맞춤 건강관리 솔루션이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1일 섭취 칼로리를 정해 주며, 식사 기록을 하면 자동으로 섭취한 칼로리를 계산해 식습관 개선을 도와준다.

보건소도 담당 건강코치(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를 통해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확인하고 코칭해 주며, 달성 가능한 미션을 매주눔 헬스 앱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박정호 기자 pcg@khihoilbo.co.kr



법원 찾은 학생들 호기심 가득

부천시·인천지법 부천지원, 견학 프로그램 진행

부천시내 학생들이 진로 설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 법원 나들이에 나섰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마련한 이번 견학은 학생 26명이 함께 해 학업 등 진로에 대한 법원 견학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학생들은 실제로 열리는 형사법정에서 구형과 변호 과정을 보고 들었다. 또 법관 앞에 비치된 좌석이 누가 앉는 좌석인지, 낫선 기계(실물 화상기)가 무엇인지, 재판 진행 중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등 궁금한 것들을 질의했다. 김수일 부천지원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법관이 되고자 한 계기, 법관이 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 법관이 된 후 맡은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등 진로 탐색과 관련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박중부 보육아동과장은 "학생들은 실제 재판 과정도 인상 깊었고 직업으로서의 법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수원 숲·하천과 가까워질 기회

수원시 2016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출정식 가져

수원시는 16일 장안구 하광동 광교공원에서 '2016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초등학생 104명, 중학생 101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수원의 공원, 숲, 생태환경, 문화, 하천을 탐사한다.

초등부 학생들은 수원천, 화홍문, 속지산, 서호공원, 서호생태수원센터 등을 둘러보며 중등부는 광고수변산책로, 팔색길, 광고호수공원에서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수원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대 기자 pj@khihoilbo.co.kr

수원에 국내 대표 시인·미술인 작품 다 모였다

'예술인 한마당 큰잔치' 개막 고은·도중환·정병래 등 참여 미술작·자필시 함께 선보여 인문학 콘서트 등 27일까지

고은, 도중환 등 대한민국 대표 시인과 미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예술인 한마당 큰잔치'가 16일 수원시미술전시관에서 개막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계간 열린시학·시조시학·한국시조문학관이 공동 주관한다.

예술인 한마당 큰잔치는 '시어,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의 전시관을 통해 고은, 도중환, 안도현, 신달자 등 국내 대표 시인 450명과 정병래, 이부재, 박종희, 임항택 등 우리나라 미술계 대가 450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미술인들의 작품과 이에 대한 시인들의 자필시를 함께 전시하는 독특한 형식이 특징이다.

고은, 도중환, 정병래 등 20명의 예술인은 '융·복합 시대의 예술, 그 조화와 상생'을 주제로 27일까지 인문학콘서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시인들이 자신의 시집에 사인해 주고, 도자기에 자신의 글을 쓰는 체험행사도 열린다.

심연구 기자 sims@khihoilbo.co.kr



성남 어르신들 침·뜸 치료 경로당서 받아요

성남시한의사회, 중원지역 10곳에 주치의 배정

성남시한의사회는 여름철을 맞아 성남 중원지역의 경로당을 돌며 '경로당 주치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로당 10개소에 10명의 한의사 주치의를 배정, 파견해 노인건강 증진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한의사들은 지난 8일 삼성경로당 파견을 시작으로 9일 신구경로당, 10일 삼익아파트, 11일 금광2동복지회관 등에서 노인들의 혈압과 맥파(혈관나이) 검사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치매나 중풍, 우울증 등 노인병을 검사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진료차트 등을 만들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제 등을 수행했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장은 "한의약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도움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퇴행성 또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의학"이라며 "이런 좋은 사업으로 한의사들이 공공보건 참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질환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의학"이라며 "이런 좋은 사업으로 한의사들이 공공보건 참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7주년 광복절 기념식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는 지난 15일 신장초등학교 석바대관에서 광복절 제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강성대 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장,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 이현재 국회의원, 윤재균 하남시의회의장, 김종복 부의장, 시·도의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제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대형 태극기 손도장 찍기를 시작으로 미취학아동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각종 불거리 행사와 신장초교에서 하남시청까지 태극기 가두행진을 펼쳤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육군 제7군단, 부대 창설 47주년 자축 행사 진행

육군 제7군단은 부대 창설 47주년을 맞아 16일 부대 연병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 군단 장병들은 부대 창설의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공세기동 복진선봉'의 의지를 표출했다. 또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와 능력을 갖춰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종섭 군단장(중장)은 기념사를 통해 "더 강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해 달라"며 "상하동용자승(上下同欲者勝)의 지혜를 모아 군단에 부여된 사명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포천 정교공단 기업인협, 경로당에 에어컨 기증

포천 정교공단 기업인협의회는 최근 가산면 정교2리 경로당에 노인들의 무더위 해소를 위한 에어컨을 기증했다.

정교공단 기업인협의회는 올 여름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가산면사무소로부터 전해 듣고 에어컨 1대를 쾌적하게 됐다.

정교2리 주민들은 이번 에어컨 기증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경로당에 정교공단 기업인협의회를 초청해 지역주민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천=박득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평택 서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주민 1000여 명 참여

평택시 서탄면은 체육진흥회 주관으로 지난 15일 서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재광 시장과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서탄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식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서탄면 17개 마을이 출전한 가운데 축구 등 6개 경기

가 종목별로 진행됐으며, 이벤트 게임 및 노래자랑 등으로 주민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이 됐다.

또 사물놀이, 하모니카, 노래교실, 라인댄스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특별 축하공연을 펼치며 다채롭고 화려한 불거리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제2의 최경주·박세리를 꿈꾸며

연천왕산초, 학생·일반인 대상 '골프교실' 호응

연천왕산초등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름 골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6일 왕산초교에 따르면 여름 골프체험교실은 15일 현재 5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공교육 기관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 골프체험교실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 및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티샷(Tee-shot)과 퍼팅(Putting)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돼 있어 초보 골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골프체험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접하기 힘든 골프를 학교에



서 직접 배우고 있어 즐겁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좋았다"며 "학교에만 있으면 언제든 무료로 골프 체험과 개인에 맞춘 교육 과정으로 골프수업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hihoilbo.co.kr

하남시 20일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근절 캠페인 펼쳐

하남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 저해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근절 캠페인 및 정비는 관내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도시과 직원을 주축으로 현수막·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주 1~2회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 불법스마트 앱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이웃 돕는 천사들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죠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기자단 이종민·이지현 씨

인천지역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미담이 시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기자단의 이종민(66)봉사자와 이지현(28·여)봉사자다.

이들은 2015년부터 매달 따뜻한 마음을 가진 봉사자를 찾아 취재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직장인인 이들은 주말 등 자신의 휴식시간을 흔쾌히 기자단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봉사자의 좋은 사례를 통해 인천지역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이종민 봉사자는 “취재를 나가 여러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다 보면 아직도 배울 점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기자단 활동도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 활동이 부끄러울 정도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매달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추천으로 인천시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를 받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있다.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

는 봉사자부터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직접 발로 뛰는 봉사자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자원봉사기자단 활동은 이들이 봉사하는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자 시작했다. 아직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미담 사례를 보며 ‘나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전한 우수 자원봉사자 소식은 총 14명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40건이 보도됐다.

“어떻게 하면 사진이 더 잘 나올까”, “어떻게 기사를 써야 이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등 고민을 거듭하며 함께 활동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넘었다.

이지현 봉사자는 “취재를 위해 만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스스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며 “우리가 전한 소식을 보고 봉사활동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마음만 먹으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희연 기자 khy@kioilbo.co.kr



알림

▶ 인천언론인클럽(회장 박민서) 사무실 이전=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체육관 109호. ☎032-468-9235

결혼

▶ 마르샬 마튜(마르샬 재키·마르샬 클로데트 씨 막내) 군·정지연(정현 씨 장녀)양=20일(토) 낮 12시 천주교 역삼동성당. ☎02-553-0801



강화군립도서관 손뜨개 등 여름방학 프로그램 인기

강화군립도서관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름 피서지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서관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나도 만화가’, ‘창의수학 보드게임’, ‘손뜨개 인형 만들기’, ‘공필 나들이’ 등이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2일 여름방학을 맞아 운영한 ‘이불꽃’ 문화공연은 110여 명이 관람했다. 강화=김희호 기자 kimhho2@kioilbo.co.kr



중부해경본부, 조형호 경위 등 숨은 일꾼 8명 표창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부는 합정과 안전센터 등 일선 근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 8명을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숨은 일꾼은 지난 6월 23일 안산시 제부도 김 양식장 관리 어선 화재에서 2명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을 한 조형호(41)경위와 7월 30일 인천시 중구 왕산해수욕장에서 익사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희생시켜 119로 인계한 강신광(42)경사 등 국민의 안전을 밤낮 없이 지켜 낸 직원들이다.

배충진 기자 jongjb@kioilbo.co.kr



인천남구노인복지관, 노인 600명에 삼계탕 대접

인천남구노인복지관이 16일 지역 노인들을 위한 ‘말복 삼계탕 데이’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법인 ‘다문화아시아협회’와 함께 진행했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활동도 자체에 큰 힘이 됐다.

복지관은 이날 지역 노인 600명에게 시원한 수박과 직접 만든 삼계탕 등 건강밥상을 대접했다. 식사 후에는 발마사지 봉사도 함께 진행해 더위에 지친 노인들의 피로를 풀어줬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아시아협회뿐 아니라 새은누리사랑나눔, C&K웨딩컨벤션 등 지역사회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아 이뤄졌다.

김희연 기자 khy@kioilbo.co.kr

인천 문화재·생물자원 스스로 지키자 다짐

제4회 불휘깊은문화재포럼 ‘생물주권’ 주제로 개최

‘제4회 불휘깊은문화재포럼’이 지난 15일 인천 서구청 대강당에서 ‘생물자원도 문화재다-생물주권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호일보가 후원하고 문화재청과 불휘깊은한문화재한지킴이가 주최한 포럼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3차례의 사전교육 과정에서 우리나라 토종벌에 대한 실태 체험과 ‘백두산 돌은 따뜻하다’의 전병호 작가와 백두산의 토종식물을 알아보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협조로 인천지역 내 문화유산을 점검했다.

행사는 초·중학생 로봇동아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의 문화재 화재 시 대처 방법, 문화재지킴이 활동 동영상 상영, 생물자원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 우리 생물을 주제로 글을 쓴 김종상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미스 김라일락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것을 지켜주지 않기에 학생들 스스로 우리 것을 지키려는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성 기자 jskim@kioilbo.co.kr

지역 정책 주민이 직접 전해요

인천 동구, 구정 홍보 SNS 서포터스 20명 발대

인천시 동구가 구 정책과 축제 및 다양한 볼거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 역할을 담당할 서포터스를 구성했다.

구는 16일 대상상황실에서 학생 및 구민으로 구성된 20명의 서포터스가 참석한 가운데 동구 SNS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구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달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SNS 매체 운영 경험이 있고, 동구의 역사·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 및 구민으로 구성된 20명의 서포터스를 모집했다.

서포터스는 2018년 8월 15일까지 2년간(연임 가능) 동구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과 연계해 동구의 정책과 축제 등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혜택



과 함께 매월 우수 활동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이 될 SNS 서포터스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활발한 SNS 활동으로 동구의 문화·관광·구정 소식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유태 기자 cyt@kioilbo.co.kr

인생 2막!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와이즈에너지월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확실하고 안정된 소득! 노후를 준비하자!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근거한 태양광 RPS발전사업은 건물 위, 대지에 자신에 자금규모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발전소에 판매하는 안정된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하면 전기요금 부담 해결됩니다.

•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주택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절약 • 신축주택의 태양광설치로 가치상승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공사 · 수요자원등록 전문

태양광발전사업 문의 ☎1566-1336

러시아 투톱과 상파울루 훈련 끝~ 연재 왔어요

<아나 쿠드랍체바·마르가리타 마운>



리우올림픽 결선전에 도착한 뒤 손을 흔들고 있는 손연재.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린시절 리듬체조 볼 연기 사진을 올리며 '지금까지 정말 참 잘 왔다 꼬꼬마'라고 적었다. /연합뉴스·손연재 인스타그램

올림픽 특특 결선전 리우 입성... 러 대표팀 동행 담금질 만족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메달을 노리는 손연재(22·연세대)가 결선을 나흘 앞두고 리우에 입성했다.

손연재는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갈레앙 공항에 러시아 리듬체조 대표팀과 함께 도착했다. 손연재는 지난달 말부터 상파울루에서 러시아 대표팀과 함께 브라질 현지 적응 훈련을 소화했다.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로 1시간 10분 거리를 날아온 손연재는 훈련 효과가 만족스러웠던지 환한 표정으로 입국장에 들어섰다.

4년 전 리듬체조 개인종합서 5위 사상 첫 메달 도전 후회없이 준비 하루 두 번 프로 점검... 19일 출전

손연재는 상파울루에서 러시아의 세계적인 '투톱' 아나 쿠드랍체바, 마르가리타 마운 등과 함께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일본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하야카와 사쿠라도 러시아 대표팀과 훈련을 함께 했다. 손연재는 입국장을 빠져나온 뒤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컨디션 조절을 잘하겠다"며 "집중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연재는 4년 전 런던 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개인 두 번째 올림픽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리듬체조 개인종합 5위에 오르며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고 성적을 냈다. 손연재는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가 한번 해 봤다고 해서 두 번째가 쉽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정말 큰 무대이고, 모든 선수가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왔다. 저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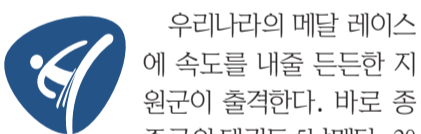
손연재는 선수촌으로 향해 리우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 날부터 하루 두 차례씩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사흘 간의 훈련 일정이 끝나면 19~20일 결선이 펼쳐진다. 손연재는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손연재는 "브라질 현지에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자정은 없다"며 "올림픽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니까 실수 없이 깨끗하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러시아 대표팀과 함께 훈련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브라질 현지에서 훈련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며 "이제는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죠"라고 했다. /연합뉴스

태권도 그랜드슬램 둘이나 예약해뒀네



한국 태권도 남자 58kg급 김태훈과 체급을 올린 68kg급 이대훈은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4대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된다. /연합뉴스

Rio 한국선수단 도전 드라마 한국 5남매 오늘부터 메달 사냥



우리나라의 메달 레이스에 속도를 내줄 든든한 지원군이 출격한다. 바로 중국 태권도 5남매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태권도 대표팀이 17일(이하 한국시간)부터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58kg급 김태훈(동아대)·68kg급 이대훈(한국가스공사)·80kg 초과급 차동민(한국가스공사), 여자 49kg급 김소희(한국가스공사)·67kg급 오혜리(춘천시청) 등 다섯 명이 출전한다.

우리나라 국가(國)인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처음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치러졌다. 한국은 2012년 런던 대회까지 네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효과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 2000년 금메달 3개·은메달 1개를 시작으로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금메달 2개·동메달 2개의 성적을 냈고,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출전 선수 네 명이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전자호구시스템이 올림

김태훈·이대훈, 금메달 획득하면 4대 메이저대회 우승 대기록 달성 4강행 실패했던 차동민 설욕 노력

세계선수권 챔프 등극 경험 있는 여자부 김소희·오혜리 자신만만

픽에서는 처음 도입된 런던 대회에서는 여자 67kg급의 황경선만 금메달을 따고 이대훈이 남자 58kg급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는 데 그치며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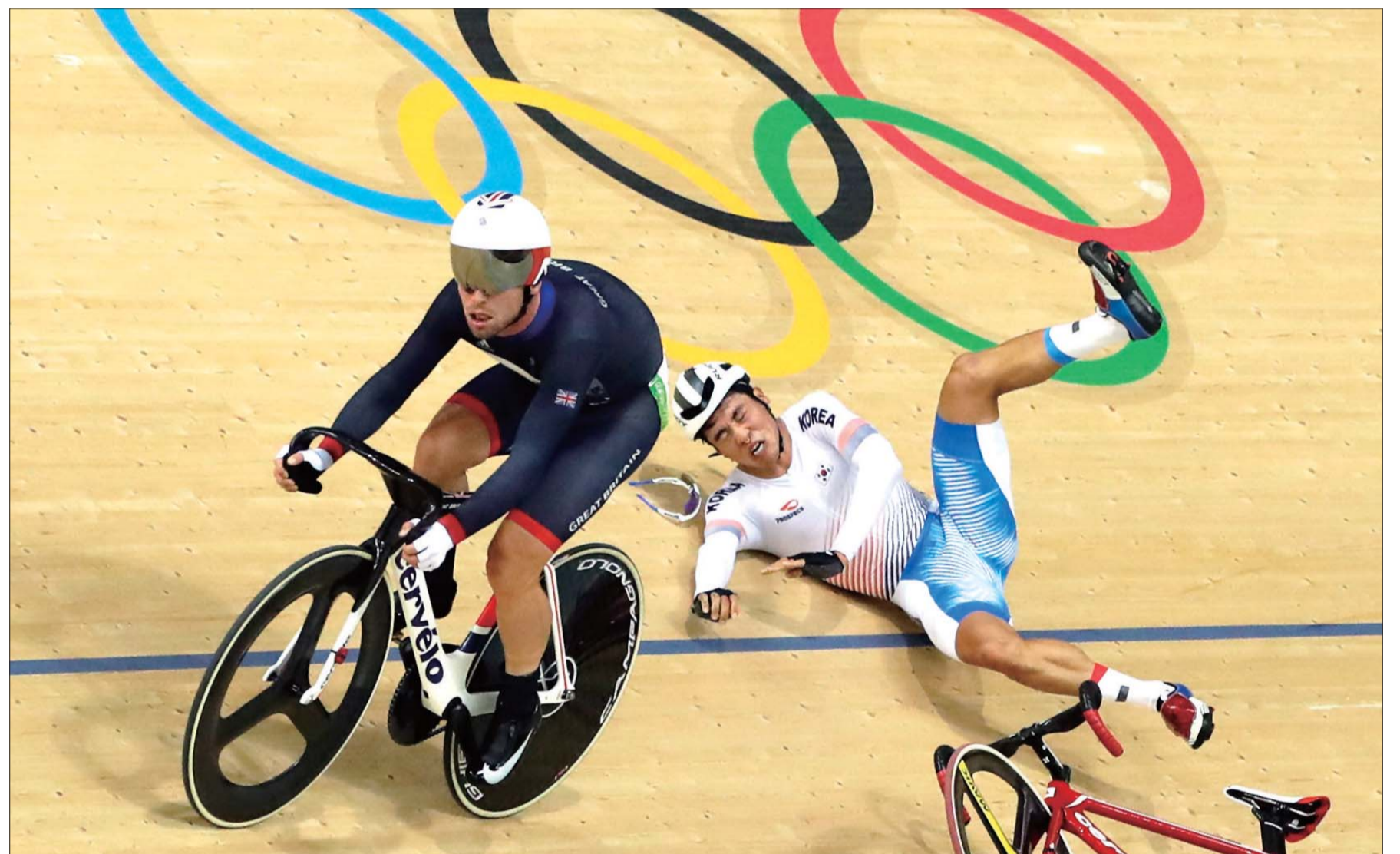
금빛 레이스의 첫 테이프는 17일 김소희와 이대훈이 끊는다. 김소희는 2011년 광주 대회에 이어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푸 우승을 차지한 월드 챔피언 출신이다.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중국의 베테랑 우징위가 최대 난적이다.

김태훈 역시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 2015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선수다. 2014년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한 김태훈은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태권도 4대 메이저대회 우승을 휩쓰는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한다.

18일에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계태권도연맹(WTF) 올해의 선수로 뽑힌 이대훈이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무대에 오른다. 런던 대회 남자 58kg급 은메달리스트 이대훈은 리우에서는 체급을 68kg으로 올린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대훈 역시 이번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을 이룬다.

19일에는 만연 오혜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오혜리는 올림픽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카잔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으로, 이번 대회 금메달 후보로 전혀 손색없다. 태권도 경기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최중량급인 차동민이 출격한다. 차동민은 한국 남자 태권도 선수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올림픽 코트에 선다. 2008년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만 2연패를 노린 4년 전 런던에서는 8강에서 떨어졌다. 리우는 그에게 설욕의 무대다. /연합뉴스

사이클 메달 꿈이 충돌 한 번에...



리우올림픽경륜장에서 16일(한국시간) 열린 사이클 남자 율니엄 포인트레이스 경기 도중 한국 박상훈이 충돌 후 들것에 실려 이송(작은 사진)되고 있다. /연합뉴스

리우 한껏 기대주 박상훈, 율니엄 경기 중 낙차 사고 병인 이송



16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올림픽경륜장에 '우당탕탕'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한국의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박상훈(23·서울시청)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트랙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박상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들것에 실려 나갔고, 앰بول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00바퀴가 넘게 남았지만 박상훈은 달릴 수 없었다.

박상훈은 최근 1년간 기량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대한자전거연맹을 비롯한 사이클계가 박상훈의 올림픽 메달 획득을

월드컵 부문별 4위까지 오른 전력 18개국에만 주어지는 출전권 따내 검사 결과 타박상... 큰 부상 면해

기대한 이유다. 그는 올해 1월 경기 중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월드컵 율니엄 부문 랭킹이 4위까지 올라갔었다. 다행히 부상에서 완쾌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 세계 18개국에만 돌아가는 리우 올림픽 율니엄 출전권을 따냈다. 이틀간 6가지 트랙사이클 종목 경기를 치러 종합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율니엄은 15~16일 리우올림픽경륜장에서 열렸



다. 박상훈은 5개 종목이 끝났을 때 18명 중 14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위권이었던 마지막 종목이 포인트 레이스였기에 승부를 걸어야 했다. 포인트 레이스는 트랙 160바퀴를 돌면서 10바퀴마다 전력질주를 해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는 경기다. 막판 뒤집기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박상훈은 두 차례 점수를 따며 역전에 시동을 걸었지만,

예상치 못한 낙차 사고를 당했다.

52바퀴째에서 자리싸움을 하다 영국 마크 캐번디시의 자전거와 부딪치면서 박상훈이 트랙 아래로 떨어졌다. 박상훈을 향해 뛰어간 사나이가 있었다. 한국 사이클의 전설이자 박상훈을 전담 지도하는 조호성(42) 국가대표 감독이다.

박상훈은 2010년 세계트랙주니어선수권대회 개인추발 금메달을 목에 건 기대주다. 여기에 포인트 레이스 등 순위 경기 비법을 전수하고, 경험을 보완해 주는 것이 조 감독의 역할이었다. 조 감독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포인트 레이스에서 한국 사이클 사상 올림픽 최고 기록인 4위에 오른 바 있다. 사이클 대표팀은 박상훈이 허리와 골반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고 큰 부상은 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Utd 오늘 전복과 흥경기, 직장인에 맥주 쏘기 등 행사 다채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는 17일 전복 현대와의 흥경기에서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은 이날 오후 8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26라운드에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전복을 상대로 시즌 6번째 승리를 노린다. 북측광장에서는 음식들과 각종 음료들이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경기 시작 전에는 장내 아나운서의 주도 하에 응원 배우기를 실시, 호응이 좋은 팬들에게 별매 테이بل석 즉석 업그레이드 혜택을 비롯해 드마

리스·프라이머리스·엘레나키친 식사관 등 알찬 경품을 제공한다. 직장인 대상으로는 인유상사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장을 찾은 직장인 1천 명에 한해 E석 팬라운지 부근에 준비된 행사부스에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고 '건강한 회식문화 동참 서약서'를 작성하면 볼비어 맥주 한 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키오프 직전에는 프로 통산 300경기 출전의 금자탑을 쌓은 김태수의 시상식이 진행된다. 하프타임에는 U-15 광성중의 '2016 예산사과기 전국중등축구대회' 준우승, U-18 대건고의 '2016 K리그 U-17, U-18 챔피언십' 준우승 시상식이 진행된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주민읍, 양양국제사이클 우승

주민읍(의정부부공고)이 8·15경축 2016 양양국제사이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주민읍은 16일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서 열린 이 대회 남자고등부 개인추발 3km에서 3분36초781의 기록으로 강동구(영주제일고)와 박성목(서울체고)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주민읍은 올 시즌 3관왕에 올랐다. 여자일반부 개인추발 3km에서는 이주미(연천군청)가 3분45초609의 기록으로 우승(대구시청)과 문혜선(서울시청)을 뒤로하고 역시 우승했고, 남자일반부 단추발 4km에서 가평군청(4분14초029)은 강진군청(4분13초517)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심윤기 기자 sims@khihoilbo.co.kr

성남서 20·21일 생활체육 탁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탁구대회가 오는 20일과 2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20일에는 제11회 분당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열린다. 사전 신청한 초·중·고·대학생부터 노인까지 520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개인, 단체, 실버부, 초등부, 중등부, 직장부로 나뉘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당지역 22개 동 대항전도 열린다. 대회 결과 최우수·우수 등 45개 단체와 개인에게 시상품을 준다. 2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민생활체육 성남시탁구연합회 수정구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수정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한국선수단 응원합니다 17일 경기(한국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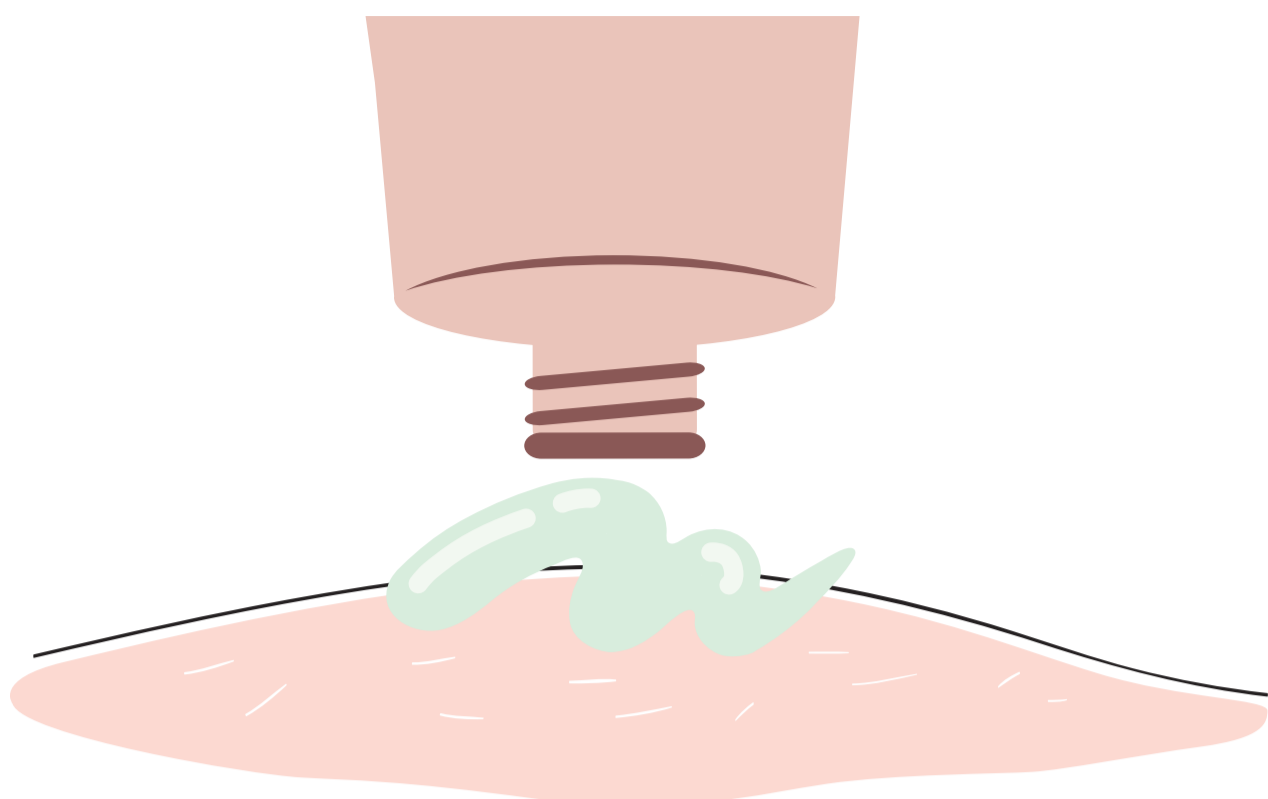
골 프 여자 개인 리우드
김세영 박민비 양희경 전연지(17일 19:30)

탁 구 남자 단체전 동메달결정전
한국 이상수 정영식 주세혁 VS 독일(23:00)

태 권 도 남자 58kg급 예선 김태훈(23:15)
여자 49kg급 예선 김소희(23:30)

배드민턴 남자 단식 8강 손연재(23:30)

오늘의 경기
◇17일(수) ▶프로야구-키-키아(광주) 롯데-세진고척 두산-한화(창주) SK-LG(잠실) 삼성-NC(이성) 오후 6시 30분-마산 ▶프로축구-전남-서울(광양축구전용경기장) 오후 7시 울산-상주(울산문수경기장) 수원-F-제주(수원종합운동장) 성남-광주(탄천종합운동장) 수원-포항(수원월드컵경기장) 이삼 오후 7시 30분 인천-전북(오후 8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프로축구2부-대구-강원(대구수스타디움) 부산-대전(부산종합운동장) 인천-고양(인하스타디움) 이삼 오후 7시 30분 부산-충주(부산아시아드) 안양-경남(안양종합운동장) 이삼 오후 8시 ▶오토-제주회 대한오토협회경매 국가대표 선발전(오전 9시) 올진군 후포형 일원



얼굴·몸 선크림으로 완전무장 태양 앞 피부 건강 “이상 무!”

명·의·건·강·체·크 피부암

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다. 폭염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으로 인한 환자도 1천5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또한 자외선으로 인해 일광화상·햇빛 알레르기 등 피부가 괴로운 환자들도 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날씨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써야 한다. 자칫 소홀할 경우 피부암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암은 피부에 암세포가 발생해 성장하고, 심지어는 다른 기관에까지 퍼지는 것을 말한다. 보통 피부암은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밝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한다.

피부암은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로 쉽게 발견돼 조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부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접이나 다른 피부병으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암종에 비해 전이율이 낮음에도 발견 당시엔 전이가 된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오존층의 파괴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자외선 노출이 많아져 피부암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흑색종과 기저세포암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자외선 노출이 어른이 된 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피부암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공 태닝(Tanning·자외선에 피부를 노출시켜 갈색의 색소인 멜라닌을 만드는 것) 금지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방법 및 치료

우선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선크림은 UVB 차단지수 SPF 30 이상과 UVA 차단지수 PA+ 이상을 사용해 UVA와 UVB 모두 차단되는 것을 권장한다.

야외 활동을 하게 된다면 구름이 낀 날이나 겨울철에도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다. 또한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있을 때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고, 더불어 긴 소매의 옷을 입는 것이 피부암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선글라스 착용도 필수적이다. 피부 태닝을 위해 인위적인 태닝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암 발생에 악

영향을 미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부색이 밝은 사람이나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검은 점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미 있던 점의 모양·크기가 변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생겼다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확실한 피부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피부암 치료의 목적은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외과적 수술이 일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병변 주위의 정상 피부 조직을 일부 포함해 암을 제거해야 한다. 피부암의 종류와 크기, 환자 상태에 따라서 냉동치료, 바르는 항암제, 전기소작술, PDT 등의 치료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미 진행돼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에는 표적 치료법, 방사선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도움말=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피부과 김희수 교수>



얼굴 부조화 완화로 자신감 회복

메·디·컬·칼·럼 코 재수술

코의 모양에 따라 얼굴 전체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의 중심은 코’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성형외과에서 ‘눈’과 함께 가장 많이 진행되는 성형수술 부위로 ‘코 성형’이 꼽히지만 재수술 사례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유인즉, 코는 얼굴의 중심이며 얼굴에서 유일하게 튀어나온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의 크기나 얼굴의 다른 부위 등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코의 모양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부작용스러운 수술 결과와 함께 인상이 변하는 것이다.

코 재수술은 이전 수술로 이미 한 번 손상된 조직을 다시 교정해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술 계획과 방법의 선택에 있어 담당 전문의의 역할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정확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수술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대부분의 재수술 환자는 실패한

비뿔어짐 등 부작용 속임이 해결 상황별 개선 방향 달라 상담 필수 기존 상처 완전 회복 후 진행해야

과거 사례로 인해 두려움과 새로운 수술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담당 전문의는 환자의 불안한 심리상태까지 충분히 고려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노하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고려 사항을 거치지 않은 수술은 환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거둬진 재수술로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 재수술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한 후 부작용의 개선과 미용적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수술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보형물이 코끝으로 내려온 경우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에 따라 각각 다른 맞춤형 수술법이 제공돼야 한다.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기 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최

적화된 수술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 재수술은 부작용이 발생한 부위의 병증을 완화하고 수술 부위의 자연스러움을 더하는 데 수술 목표를 두고 외모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의 바람과 부작용으로 인한 병증의 완화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

재수술은 이전 수술 뒤 5~6개월 정도가 지난 후 완전히 상처 부위가 회복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형물이 비뿔게 삽입됐거나 코끝이나 콧구멍이 비대칭으로 형성된 경우와 같이 수술이 늦어지면 변형된 모습으로 코가 굳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부작용의 발생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수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환자는 코 성형 전문의를 통해 적절한 수술 시기와 방법을 검토해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정강의료재단 JK위드미성형외과피부과 김도석 성형외과 원장>



개학 전 수두~볼거리 예방접종 필수

질병관리본부가 개학철을 맞아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16일 권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올해 4~6월 사이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유행했다”며 “2학기 개학 이후에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백일해 같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이 높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감염이 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예방접종 일정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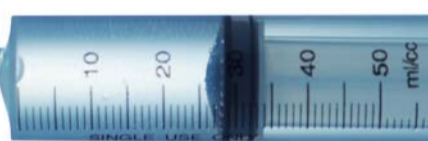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6세 시기는 기초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 면역력이 약해지는 때로 MMR(2차), DTa

P(5차), 폴리오(4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등 4종류 백신의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초등학교 1학년(만 6~7세)의 경우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대부분 추가접종(4종)을 완료하고 입학하지만, 한두 가지 백신을 빠트린 학생들의 경우 접종기록 확인 후 인근 병원을 찾아 가만 된다.

초등학교 5~6학년(만 11~12세) 학생은 Td 또는 Tdap(6차), 일본뇌염(사백신 5차)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간 학생의 경우도 빠진 접종이 있다면 늦게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편,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15종의 국가예방접종을 가까운 지정의료기관(7천여 곳)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 백신(15종)

- ▶BCG(파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IPV)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페렴구균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김경일 기자 kik@khihoilbo.co.kr

드론, 맥주를 나르다!
불꽃, 밤마다 터지다!

최강 파워 뮤지션 9일간의 콘서트

2016 송도세계문화축제
Songdo Global Culture Festival

대한민국 맥주축제의 전설

2016. **8.26(금)~9.3(토)** 9일간
송도축제행사장 032.830.0605

경인방송 FM 90.7MHz OBS 한TV

놀 곳 없는 수원 행궁동 아이들 도로변서 뛰논다

어린이 공원 1km 이상 떨어져... 걸어서 이용하기 어려워 주민들 “원도심 쉼터 태부족” ... 시측 “타당성 검토할 것”

수원시가 원도심 지역인 팔달구 행궁동 일대에 어린이공원을 한 군데도 조성하지 않아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변 등으로 내몰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 전역에는 총 196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팔달구에는 8개 동에 3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다. 팔달구 내 동별로는 화서2동 10개,

인계동 7개, 우만1동·화서1동 각 5개, 고동동·지동·우만2동 각 2개, 교동 1개가 들어서 있다.

해당 어린이공원을 가운데 거리상으로 행궁동과 가장 가까운 곳은 지동 336번지 미나리쉼터 어린이공원으로, 행궁동 마을과는 1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 어린이공원은 행궁동 마을에서 도보로 걸어가려면 왕복 5차로 도로

를 건너야 하고 숙박업소,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 밀집해 있는 시내 골목길도 지나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해당 어린이공원으로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면서 비교적 동네와 가까운 거리의 인근 화성행궁 광장이나 집앞 도로변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행궁동 일대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날 행궁동 마을 곳곳에선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차

량들이 다니는 도로변에서 노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행궁동 마을 말고도 화성 성곽 내 원도심권 전제로 따져 봐도 어린이공원이 미나리쉼터 한 곳에 불과해 학부모들은 서둘러 어린이공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대표적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세류동의 경우 총 8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이 중 세류1동은 행궁동보다 주민 수가 162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 2개를 보유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민 김모(35·여)씨는 “영동이나

광교 등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설치돼 있고 주변 상가에 키즈카페도 있어 아이들이 놀 데가 많다”며 “하지만 행궁동 같은 원도심 지역은 어린이공원이라도 설치돼 있지 않으면 자동차가 다니는 동네 길에서 아이들이 위험천만하게 놀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궁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hihoilbo.co.kr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징역 3년 선고에 그치지자 檢 “이의 있소”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서모(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선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인 징역 1~3년의 상한선으로 형량을 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운전자로,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앞서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음에도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로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며 “음주운전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엄벌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현철 2차장 검사는 “법원은 일반적인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앞서 선고된 형량을 양형기준으로 삼았는데 시대가 변하면 양형기준도 변해야 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기존의 양형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변화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는 단순히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성남 60대 여성 번사 사건 실마리 찾지못해 수사 난항

성남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사건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정구 수진동의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 김모(60)씨의 지하방에서 이모(63·여)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는 다름의 흔적이나 특이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 불명으로 나왔다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이 세입자의 집에서 발견됐고, 이 씨의 사망 추정 시점(25일) 다음 날부터 김 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채 출근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사건의 연관성을 두고 김 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지병 등 병원 기록이 없고, 김 씨가 이 씨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다름이 잦았다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일대 CC(폐쇄회로)TV 분석에서 화면 해상도가 낮고 인상착의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김 씨의 행방은 보름 넘게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과 CCTV 분석 범위를 넓혀 김 씨의 행적을 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적하고 있지만 사회활동이 없고, 이동경로 파악도 안 돼 현재로서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더위 날리는 물세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16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신입 소방사 교육생들이 훈련 도중 시원한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용인=홍승남기자 nam1432@khihoilbo.co.kr

도내 학교 폭염에 지쳐 ‘개점휴업’

개학 연기·단축수업 등 잇달아 교육청 “학사일정 변경 늘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경기도내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사일정을 조정할 학교를 파악한 결과, 도내 초·중·고교 4곳이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이날 개학 예정이던 안산국제비즈니스고와 평택 은혜고는 각각 22일과

19일로 개학일을 조정했다. 또 18일 개학 예정이던 의왕 갈매중과 평택 동삭초는 각각 22일과 25일로 미뤘다.

이는 폭염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이 상할 것을 염려함에 따른 조치다.

이미 개학한 학교들에서는 단축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12일 개학한 동두천 보영여고는 매 교시를 50분에서 30분으로 줄였고, 고양 가좌고와 백마고·구리 토평고·남양주 진건고·용인 수지구

등 5개 학교는 수업시간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수업시간을 단축한 학교는 이날 현재 모두 8개 교로 파악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11일 ‘폭염특보 발표에 따른 상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 폭염으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개학 연기와 휴교, 단축수업, 등·하교 시간 변경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8월 17일(수)

해돋이 05:50 | 달몰림 18:29
해질름 19:22 | 달뜨기 04:21

외출할 때 선글라스 챙기세요

구름 많고 자외선지수 높겠음. 아침 최저기온 21~26도, 낮 최고기온 32~34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량 (%)		
종류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서해 북-북동	4~9	0.5~0.5	인천	10	20
남해 북동-동	5~9	0.5~0.5	수원	10	20
동해 북동-동	3~5	0.5~0.5	동두천	10	20
			이천	10	20
			양평	10	20
			강원	10	20

제공 KwOther www.630.co.kr

유람선, 도선 탑승시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2016. 1. 25.)

신·시·모도 장봉도 여행시 신분증 꼭 지참

탑승객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5조)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대체 가능 신분증 등
일반인 (대학생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수상레저면허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 건강보험증, 국가공공기관 발행 자격증, 지자체 발행 도서인 전자 인증카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학생증,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해당지역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바일 신분증
초·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 학생증, 유효기간 내 여권, 국가공공기관 발행 자격증, 청소년증, 지자체 발행 도서인 전자인증카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해당지역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바일 신분증, 승선신고서 비교란에 보호자(부모, 친척, 교사 등) 성명기재확인
군인	주민등록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사관생도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모바일 신분증, 승선신고서 비교란에 동행 대표자(내국인 또는 외국인 대표) 성명기재확인
미취학아동 (유아포함)	유효기간 내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바일 신분증, 승선신고서 비교란에 보호자(부모, 친척, 교사 등) 성명기재확인

※(인정하지 않는 신분증의 예) 사원증, 각종사원이 부착된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기타 민간자격증 등

<단체승객 승선권 발급 절차>
- 20인 이상 단체 승객이 개별 또는 대표자 일괄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미리 작성 또는 현장에서 작성된 승선신고서를 사업자가 확인, 승객인원 파악 후 승선 ※단체 일괄 확인시 신분이 불일치한 승객은 개별 신분증 확인

세종해운(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 55 문의전화 ☎032)751-2211

인천시 도시철도 2호선 '뒷북 점검' 빈축

어린이 발 끼임 등 잇단 사고에 24개 전 역사 전수조사 추진 '개통 전 안전사고 우려에도 개선 없이 운행 강행' 지적 일어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어린이의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24개 전 역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시철도 2호선에서 발생한 어린이의 열

차와 승강장 사이 발 끼임 사고와 관련해 2호선 전 역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0일 도시철도 2호선 독정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와 유모차의 끼임 사고 때문이다. 사고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8~9cm에 달했다고 지적했으며, 인

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승강장과 열차 간격을 5cm로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시공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교통공사는 사고 당시에는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7.5cm인 것처럼 답변했다가 일주일이나 지나 법에서 정한 기준은 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어린이가 빠진 독정역의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은 9c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역시 다수 역에서 5c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개통 전부터 이 같은 사고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시는 충분한 개선 없이 개통을 강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안전발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실족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며 "장애 인용 승강장의 경우 구조상의 이유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경고 설비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이청연 교육감 측근 등 3명 변호 '디카이온' 인천사무소가 맡는다

사정기관 출신 등 7명 선임 지 25년 넘게 서울·인천·수원 지검, 법무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공판부장,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광주·전주지검 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변호인단에는 경찰청·국세청 출신도 2명이 포함됐다.

디카이온은 2008년 설립했으며, 인천사무소는 2011년 8월 인천변화에 등록했다.

통상적으로 법무법인인 다수의 담당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계산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의 한 변호인은 "요즘 같은 시기에 예민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재판에 참여하면 뭔가 달라드"라며 "디카이온 자체는 법조계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인천 사무소 같은 경우 인천에서 꽤 괜찮은 곳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양궁장 옆 골프연습장 건설 계양구 주민들도 반대 동참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옆에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인천양궁협회 등 양궁인 <본보 8월 4일자 2면 보도>뿐만 아니라 계양구 주민들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6일 계양양궁장이 있는 계양경기장 주변에는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 일색이다. '양궁장 문 닫고 골프연습장 하려는가(계양구 농구협회)', '당신 집 옆에 골프연습장 만들어라(계양구 축구협회)', '올림픽의 우리 양궁, 죽이지는 말아주세요(광대가야파트 부녀회)', '주민 정서 무시하는 골프연습장 취소하라(서운고운영위원회)' 등 각 단체들이 게시한 현수막 30여 개가 붙어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제대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이 있는 계양경기장 일대에 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경일 기자 kik@khihoilbo.co.kr

간 조명에 타구 소음 등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 피해 양궁장 훼손 가능성 지적도

로 된 연습과 대회 개최가 어려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은 양궁경기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또 야간 조명과 타구 소음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계수중학교와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계양구에 두 개 있는 실외골프연습장의 사업자들은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하소연한다. 계양구에 접수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르면 3층, 120타석 신축 계획으로 현재 계양구에 이미 설치돼 있는 총 124타석과 맞먹는 규모이

기 때문이다.

골프연습장 관계자에 따르면 높이와 넓이에 의해 타석 수가 결정돼 높이 35m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현 계양 부지에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골프연습장 건립을 낙찰받은 한 사업자가 고도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아직

도 흐지부지한 상태인 선화경기장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형 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계양평화복지연대 박민욱 대표는 "해당 부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튀어나간 골프공으로 인해 차량사고 등 참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인천시가 골프연습장 건립 추진을 중

불법 조업 중어선들 '돈 내느니 구속'... 담보금 납부 20%도 안돼

올해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붙잡힌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이 20%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선장 등은 비싼 담보금을 내는 것보다 배를 몰수 당하고 구속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인천해경서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배타적경제수역, 영해 등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총 담보금 44억 원(35척) 중 19%인 8억 원(4척)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 중국 선장·선원 등은 한 척당 평균 1억 원가량의 담보금을 내야 하지만 목선을 포기하고 구속되더라도 상고심까지 가서 담보금보다 적은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최근 영해 및 접속수역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0)씨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중국인 선장 B(46)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전자제품 판매' 인터넷에 허위 글 올려 돈 가로챈 20대 구속

인천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허위 물품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최신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물건은

'정운호 금품 수수' 의혹 부장판사 휴직 승인

대법원이 정운호(51)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6일 "인천지법 K부장판사가 정운호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6일 "인천지법 K부장판사가 정운호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6일 "인천지법 K부장판사가 정운호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600억대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중간관리자 등 5명 입건

인천삼산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 황도(3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간관리자 김모(3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9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693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배당해 3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승훈 기자 hun@khihoilbo.co.kr

www.tbroad.com
말씀생활의 상식 티브로드

디지털방송의 절대강자 티브로드

- 끝없는 볼거리! 210개의 최강채널!
- HD는 기본! 4배 더 선명한 UHD 화질!
- 영화가 생각날 땐 VOD! TV로 보는 최신영화!
- 기가인터넷과 결합하면 가격은 반값!

t-broad 인천방송 | 남동방송, 새롬방송, 서해방송
 1877-7000

하질녀서 동틀때까지 산며느라 밤길걷기

검색창에

생명사랑밤길걷기

www.walkingovernight.com

온라인 생명사랑 캠페인 수행시 <최대 자원봉사 8시간 인정>

생명사랑밤길걷기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38분마다 한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희망을 찾아나가는 특별한 캠페인입니다.

인천

2016.9.9(금) 6:00 p.m.

문학경기장 동문광장

서울

9월 2일(금)

대전

9월 10일(토)

대구

9월 3일(토)

광주

9월 9일(금)

부산

9월 9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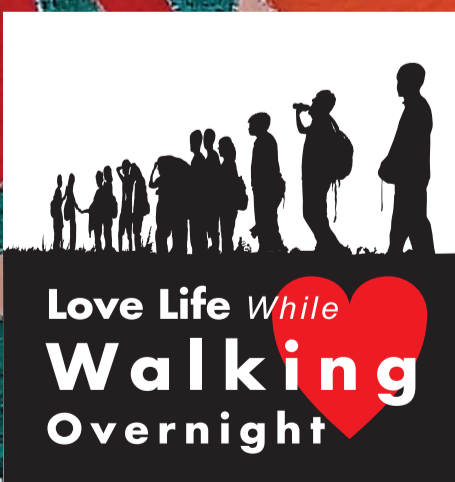
수원

9월 3일(토)

전주

9월 10일(토)

5Km 10Km 30Km



재능기부 그림 : 원은희 작가 / 디자인 : 한옥현 교수(숭의여대 시각디자인과)

주최_ 인천광역시교육청 www.iclifeline.or.kr 인천생명의전화 기호일보

후원_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참가신청 및 문의 ☎ 032) 438-9191